



‘傲霜之節’의 기개 지닌 인재로 성장하라

올해 동창회 총 장학금
30억5천여 만원 수여

〈오상지절 : 서릿발에 굴하지 않고 꿋꿋함〉



본회는 지난 8월 20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2014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관련기사 3~5면〉

10월 19일 일요일에 만나요

흙머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대회

제35회 흙머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행사를 오는 10월 19일 일요일에 거행합니다. 모교를 방문해 미술관·박물관·규장각 등을 탐방하거나 관악산을 등반한 후 교내 벚들골에서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행사에 꼭 참석하셔서 그동안 잊고 지내던 선후배, 동기들과 좋은 만남과 추억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 △일 시: 2014년 10월 19일 (일요일) 오전 9시
- △집합장소: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 △대회장소: 모교 노천강당 앞 벚들골
- △참가대상: 동문 및 동문 가족
- △참가회비: 없음
- △제공물품: 도시락, 식음료 등
- △경 품: ①승용차 ②스쿠터
③기타 풍성한 경품 추첨
(徐廷和회장 승용차 제공)
- △문의전화: 02)702-2233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徐 廷 和
서울대학교 총장 成 樂 寅

관악출추

미국, 나아가서 전 세계인들이 선망하는 대학의 대학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하버드대이다. 그것은 이 대학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고, 입학할 허가받은 학생들의 70%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장학시스템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해 사회 각계에 진출한 졸업생들은 다시 크고 작은 장학금을 다투어 내놓는 전통에 따라 후배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그 전 세계 혹은 미국이란 출발점을 한국으로 대체시켜 놓고 보면 거기에 모교가 있지만 아쉬운 것은 그들만큼 충분한 장학금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8월 20일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 2백94명의 학부생과 95명의 대학원생이 동창회로부터 2014년 2학기 장학금을 전달받는 행사가 열렸다. 총 장학금은 11억2천4백만원, 학기 장학금이 10억 원을 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문들의 참여가 많아졌다는 뜻이라고 하겠다. 하버드대와 비교하기는 턱없는 수준이고 가야할 길은 요원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오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모교의 장학관

계지들은 털어놓는다. 장학발당을 건립해 고정수익을 확보한 것도 역할을 했고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줄을 잇는 것도 큰 몫을 했다. 모두가 이름을 내기보다는 뜻을 내고 마음을 합친 사례라 할 것이다.

전달식에서 눈에 띈 것은 몽골 출신의 오강바야르(사 회대 3년)군, 중국 출신의 번 번(사범대 석사과정)양 등 외국인 유학생 6명이 장학금을 받는 모습이었다. 비로소 모교도 단순히 외국 유학생들을 받기만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한 단계 나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우리가 미국 대학에서 부러워하던 그것이었다.

동창회가 희망이다

을 받은 학생들이 선배와 유대를 갖게끔 그들을 격려를 해주고 고민도 상담해주는 멘토링이 시작됐다는 소식이다. 다른 대학에서 권유를 받은 적이 있지만 모교에서는 처음인 만큼 그 성과가 궁금해진다. 모교가 추구하는 이념이 Veritas(진리)이며 궁극적인 지향점은 ‘Veritas vos liberabit’(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이라면 모교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적 장애라는 빙장을 깨버리고 진리추구의 문을 확실하게 열어놓은 것이 된다. 아직도 좁은 문을 더 크게 열고 보다 많은 후배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동창회의 역할이 아닐까?

(李東植 영화진흥위원회 감사·본보 논설위원)

느리나무광장

19명의 총리를 배출한 영국의 명문사학 이튼칼리지에 가면 누구나 감동하게 되는 공간이 있다. 1·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뒤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튼칼리지 동문의 이름 2천여 명이 새겨진 곳이다. 부유층과 귀족의 자제만 다니는 귀족학교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튼칼리지가 영국인으로 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은 이들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 때문일 것이다.

이튼칼리지만 그런 건 아니다. 유럽 어느 곳에 가든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전몰 기념비가 있다. 한국여기자협회장 자격으로 지난 4월 런던을 방문했을 때는 버킹엄궁 가까운 곳에 전쟁 중에 숨진 여성들의 전몰 기념비가 있는 것도 눈여겨보게 됐다. 하도 전몰비가 많아 대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니 영국 전역에 5만4천개가 있다고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하버드대 메모리얼 교회에는 1·2차 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에 참전한 동문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프린스턴대 낫소홀도 마찬가지다. 이곳에 새겨진 전사자들 가운데 6·25전쟁에서 사망한 이름을 발견하면 낫날이 시큰해진다. 이 젊은이는 과연 무엇을 위해 머나먼 이

국땅에서 산화했을까. 젊은 목숨이 희생된 것도 안타까웠지만 전쟁에서 산화한 동문을 학교가 잊지 않고 자랑스럽고 고귀한 전통으로 간직하는 것도 부러웠다.

모교에도 많은 추모비가 있다. 대표적인 추모비는 4·19 학생혁명 기념탑이다. 내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인적도 드문 공대 뒤편 관악산 기슭에 위치해 오붓한 분위기를 원하는 청춘남녀의 데이트코스로 이용됐다. 朴正熙, 全斗煥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 희생된 민주열사들의 추모비도 많다. 최루가스가 멈출 날이 없던 80년대에 학교에 다녔던 내가 알던 사람도 있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각별

6·25 전몰자 기념시설

鄭 星 姬

(국사82-86)

동아일보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한 장소들이다. 그들에게 미안해서 한때는 학교에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도 무언가가 아쉬웠던 건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 세력 등 모두의 노력과 희생 위에 세워졌다. 개개인의 가족사로 소설 한 권 쓰지 못할 국민이 없다. 모교는 항상 그 중심에서 나라를 이끌어 왔다. 그런데 유독 6·25전쟁에 참전해 사망한 재학생을 기리는 기념물이 없었다. 그래서 학창시절 난 모교가 6·25전쟁 이후에 세워진 걸로 알았다. 무지한 학생이었다.

그런데 모교가 애국세력을 확대한다는 오해도 받는 것 같다. 일부러 그랬다고보다는 민주화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것이 더 급했고 모교가 부산으로 피난하는 과정에서 학적부가 손실돼 기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되지만 아쉬운 건 아쉬운 것이다.

마침내 모교가 문화관 1층 로비에 걸린 전몰자 기념패널을 대신해 내년에 제대로 된 6·25 전몰자 기념시설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반갑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애국세력이다. 세상에, 애국에 진보 보수가 어디 있고 더구나 애국자가 세력이라니? 애국세력, 민주화세력 이런 이분법 따윈 잊어버리자. 단지 모교에 적을 둔 채 대의를 위해 청춘을 바친 이들을 추모하는 것이 후배된 자의 도리를 기억했으면 한다.

관악시단

한낮, 개심사에서

金 雲 基(응용미술78-82)

동단건축 대표·시인

바람이 솔솔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풍경 끝에 달린 물고기 꼬리를 보았지요

구름이 몇 번인가

모였다 흩어집니다

노스님 오수에 든 시간

세심연(洗心淵)의 수련도 즐기고 있습니다

뒷마루 밑

적막에 섞인 누렁이가

귀찮은 듯 꼬리를 몇 번 흔들 뿐

새물내 나는 빨래처럼 펄럭이는

법어(法語)를 찾아

일백여덟 계단을 걸어온 숨소리만

부소리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동문칼럼

지난 7월 중순 동창회보 편집부로부터 칼럼 청탁을 받았었다. 워낙 둔팔이라 예정된 중국 서안 유적지 답사를 핑계로 거절의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재차 연락을 받고는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필시 동창회의 큰 기동으로 오랫동안 헌신해오고 있는 孫 편집위원장의 뜻이 들어있지 않아서이다. 그 분과의 인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그때 현대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朴生光 화백 전시회를 백상 기념관에서 열면서, 관장으로 있던 그로부터 ‘戲去戲來(손일근 編者, 1984, 한국일보사)’라는 책을 자필서명으로 받았다. 그 일로 시작돼 지금까지 만나면 반갑고, 철 지나면 궁금해하는 사이로 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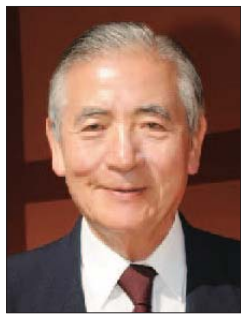
지금 절기는 처서이다. 처서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고 하고 말(馬)로 상징되기도 한다. 말이라고 하면 ‘天高馬肥’와 함께 ‘燈火可親’이라는 구절을 쉽게 연상하게 된다. 책 읽기 좋은 계절이 돌아

한다. 지금 꽤 많은 시가 휴대폰에 들어 있어 언제든 다시 읽곤 한다.

며칠 전에도 조선일보에 나온 萬海 韓龍雲의 시조를 읽었다.

이순신 사공 삼고 / 을지문덕 마부 삼아 / 파사검 높이 들고 / 남선북마 하여 불까 / 아마도 남 찾는 길은 / 그뿐인가 하노라.(無題1)

미술관에 출근하는 수원행 G버스 안에서 중얼 중얼 외워보았다. 시를 읽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시가 사회개량의 적극적인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시를 사랑하고 자주 낭송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金 利 煥

(행대원68-70)

이영미술관 관장

요즘 세태는 소리보다 문자, 대화보다 메시지로 변해 버렸다. 옛날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글을 소리내어 읽었다. 茶山 丁若鏞은 이 세상에서 무슨 소리가 가장 맑고 고우냐 하면, 눈 쌓인 깊은 산속의 글 읽는 소리라고 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시 낭송을 해보면 어떨까 해 9월에 낭송할 시로 吳世榮 시인의 ‘9월’을 적어 본다.

코스모스는 / 왜 들길에서만 피는 것일까. / 아스팔트가 / 인간으로 가는 길이라면 / 들길은 하늘로 가는 길. / 코스모스 들길에서는 문득 / 죽은 누이를 만날 것만 같다. // 피

가을의 입구에 서서

왔음을 이른다.

이때를 맞아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선인의 말을 새기며, ‘시를 읽자 그리고 낭송하자’고 제안해본다. 사람에게 따라 신문을 읽는 습관이 다르겠지만 나의 경우 큰 제목부터 쪽 훑고 나서 詩란부터 먼저 읽은 지가 꽤 오래됐다. 조선일보의 ‘가슴으로 읽는 시·시조’, 중앙일보의 ‘시가 있는 아침’, 한국경제 ‘이 아침의 시’를 지금까지 꼭 찾아 읽으며 휴대폰에 적기도

는 꽃이 지는 꽃을 만나듯 / 9월은 그렇게 / 삶과 죽음이 지나치는 달. / 코스모스 꽃잎에서는 항상 / 하늘 냄새가 난다. // 문득 고개를 들면 // 벌써 늙어지기 시작하는 햇살. / 태양은 황도에서 이미 기울었는데 / 코스모스는 왜 / 꽃이 지는 계절에 피는 것일까. // 사랑이 기다림에 앞서듯 / 기다림은 성숙에 앞서는 것. / 코스모스 피어나듯 9월은 / 그렇게 / 하늘이 열리는 달이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徐廷和

편집인 孫一根

인쇄인 孔大植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金鎮銅, 宋丙洛, 李炯均, 安炳燦, 丘月煥, 金好俊, 宋鎮赫, 李五峰, 洪性萬, 安國正, 李成俊, 李慶衡, 李元龍, 文昌克, 姜天錫, 高永才, 金仁圭, 徐玉植, 李元燮, 裴仁俊, 嚴基永,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李東植, 鄭世溶, 朴聖姬, 曹炳喆, 許英燮,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金仇日, 李啓聖, 金鎮國, 吳在錫, 崔英勳, 李容式, 許承虎, 金昌均, 李先敏, 全榮基, 姜孝祥, 李相起, 金光德, 鄭星姬, 鄭在權, 申然琇, 姜京希, 權石泉, 鄭然旭, 蔡耕玉, 許文明, 申藝莉, 金伶姬, 金希媛, 洪智英, 李佳穎
편집부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金南柱, 林香默, 邊廷洙, 朴秀埰



본회 徐廷和회장은 “외국인 장학생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모교 成樂寅총장이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선후배 간 결연사업으로 장학사업 확대해 나갈 것”

이번 2학기 총동창회에서 3백89명에 장학금 11억여 원 전달

본회(회장 徐廷和)는 지난 8월 20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2014년 2학기 장학금 및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 학부생 2백94명, 석·박사 95명 총 3백89명에게 11억2천4백90만1천4백원을 전달했다.

이로써 본회는 지난 1학기에 3백17명에게 전달한 8억9천1백16만9천원을 포함해 올해 총 7백6명에게 20억1천6백7만4백원을 수여했다.

또 각 단과대학(원)동창회가 1·2학기 장학금으로 4백35명에게 10억3천7백11만7천원을 지급함으로써 본회와 각 단과대학(원)동창회는 올해 총 1천1백41명에게 30억5천3백18만7천4백원을 수여했다. <특지 장학금 수여 현황 4~5면 참조>

본회 徐廷和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 成樂寅총장께서 취임식에서 ‘능력 있는 착한 인재 양성’과 ‘자율성 확보’, ‘발전기금 조성’ 등 2020년까지 세계 20위권 명문대학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오늘 이 자리도 21세기 우리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며, ‘傲霜之節’의 빼있는 인재들에게 정성어린 장학금을 주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2학기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4백명 가까운 재학생에게 11억2천여 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총동창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 해 장학금이 20억원을 넘었다”고 전한 뒤 “인재 양성의 큰 뜻에 동참해 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올리며, 앞으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셔서 국가와 모교의 미래를 밝혀 나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사업과 관련해 “총동창회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같은 준재를 성심성의껏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장학금만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선후배 간 결연사업을 시행해 서울대인의 참된 가치, 지성, 겸손, 봉사에 대한 견해와 운명공동체적 인식과 염원 등에 대해 격식 없는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학금을 받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여러분 역시 서울대총동창회 일원임을 잊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글로벌 서울대 총동창회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교 成樂寅총장은 격려사에서 “오늘 장



본회 林光洙명예회장 장학금 전달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장학금 전달



郭永驍특지장학금 수여



崔相弘특지장학금 수여



미래동창회 특지장학금 수여



李海遠특지장학금 수여



卞柱仙특지장학금 수여



全東龍특지장학금 수여



安聖哲·孫潤淑특지장학금 수여



鄭潤煥특지장학금 수여



鄭忠始특지장학금 수여

학생 여러분은 선배님들로부터 소중한 혜택을 받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의 한사람이 됐다”며 “이를 기회로 모교 사랑, 나라 사랑은 물론 동문 사랑을 실천하며 미래의 동량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관악에서 힘찬 날개짓으로 더욱 비상할 수 있도록 선배님들께서 모아주신 장학금이 여러분의 앞날에 소중한 거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며, 선후배가 함께하는 이런 소중한 자리가 우리 서울대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모교의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을 위해 50억원의 거금을 쾌척해주신 徐廷和회장님과 그동안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을 위해 수고하신 林光洙전임 회장을 비롯한 많은 총동창회 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장학생을 대표해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權珉瑛양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 개개인의 발전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열정’에서 비롯돼야 하며, 여기 계신 선배님들의 모교와 후배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선배님들에 대한 보답은 바로 저희의 ‘열정’을 易地思之의 마음으로 후배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의 열정과 고민을 기억하고 간직함으로써 제가 가진 이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후배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님들을 본받아 오늘 받은 사랑을 훗날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사회에 환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축가에서 趙玟浩(성악05-09)·姜美昭(성악09-13)동문이 듀엣으로 ‘내나라 내겨레’를 불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徐廷和회장과 成樂寅총장을 비롯해 본회 林光洙명예회장, 趙翺濟고문,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겸 관악회 상임이사, 朴熙伯·李海遠·郭永驍·鄭潤煥·洪性大·姜寅求·卞柱仙·金鐘燮·鄭忠始·鄭八道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李禮植·權永昊·安聖哲·朴明潤·金秉順이사가 참석했다. 또 미래동창회 劉仁洙회장·金美惠사무국장, 생활대동창회 朴明姬상임부회장, 학교법인 양지학원 金鍾祺이사장, 황산서원 李興鍾원장, 한일MEC 崔相弘회장,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 朴國洋원장, 대림산업 吳圭錫사장, 朴浩田·金英姬특지장학회 金英姬여사, 全東龍특지장학회 金貞烈여사, 吳應鉉·秋景玉특지장학회 秋景玉여사, 鄭八道·李慈倬특지장학회 李慈倬여사, 남성정밀 박희망 회장, 양전장학회 高文漢상임이사, 대덕전자 柳在鶴감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香)

2014년 2학기 특지장학금 수여 현황

(장학기금 출연순)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洪性大	洪性大(수학57-63)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具娟才(전기정보공학1)	3,500,000
		孫元希(의류2)	3,500,000
		承孝眞(화학생물공학3)	3,500,000
		李成仁(언어4)	3,500,000
		全孝濱(정치외교4)	3,500,000
		朱陽着(건설환경공학1)	3,500,000
		崔先我(생명과학1)	3,500,000
		黃 琮(농경제3)	3,500,000
엠코 金柱津	金柱津(법학54입) 엠코테크놀로지 회장	南秀玟(노문1)	1,433,500
		宋瑄宇(의류2)	3,205,000
		尹多賢(지리교육1)	1,433,500
李吉女	李吉女(의학51-57) 가천대 총장	金智寅(조경3)	3,005,000
		池多仁(지구환경과학2)	3,005,000
吳東英 ·金讃淑	吳東英(조선항공54입)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부인 金讃淑(치의학56-60)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姜正鎭(치의학碩)	4,000,000
		羅炫俊(치의학碩)	4,000,000
		李有善(치의학碩)	4,000,000
		조은별(치의학碩)	4,000,000
鄭八道 ·李慈倬	鄭八道(AIP 171) 코리아랜드캄파니 회장 부인 李慈倬여사	姜羅垠(인문계1)	2,467,000
		金兌衍(독어교육2)	2,467,000
		朴俊英(화학생물공학2)	2,529,000
		申周容(인문계1)	2,467,000
		柳珍雅(독어교육1)	2,467,000
		柳弦尙(경영4)	2,467,000
		李俊珩(통계2)	3,005,000
		林佳鉉(수리학1)	2,603,000
		崔雲午(재료공학1)	2,529,000
		韓戴喜(수리학3)	4,470,000
黃海根 ·李金玉	黃海根(토목공학54-60) 동일기술공사 회장 부인 故 李金玉여사	宋洙赫(정치외교3)	2,467,000
		趙影訓(건설환경공학2)	3,029,000
		姜性旼(의학3)	2,500,000
		金準奐(컴퓨터공학3)	2,500,000
李鍾基	李鍾基(경영69-73) 상영무역 회장	南瑄模(의학4)	2,500,000
		吳相允(재료공학碩博)	2,500,000
		崔智慧(전기정보공학碩)	2,500,000
鄭哲圭	鄭哲圭(화학공학48-52) 前신앙문화재단 이사장	洪敏義(컴퓨터공학碩)	2,500,000
		孫濟升(화학4)	3,005,000
		金東延(법학碩)	1,000,000
化學科	화학공동창회	梁榮敏(법학碩)	1,000,000
		尹義喆(의학3)	1,000,000
		李芝雨(의학3)	1,000,000
		金東延(법학碩)	1,000,000
金秉順 ·李志鎬	金秉順(AMP 471) 이영회연합회 상임고문 장남 李志鎬(의학77-83) 모교 의대 정형외과 교수	梁榮敏(법학碩)	1,000,000
		尹義喆(의학3)	1,000,000
		李芝雨(의학3)	1,000,000
		金東延(법학碩)	1,000,000
林光	林光洙(기계공학48-52) 임광토건 명예회장	權大善(재료공학3)	3,029,000
		金罔殷(정치외교1)	2,467,000
		金東燮(국어교육2)	2,467,000
		金旼貞(자유전공1)	3,005,000
		金煥眞(간호2)	3,005,000
		金容濞(작곡4)	3,956,000
		金智恩(지구환경과학4)	3,029,000
		金鎮永(재료공학3)	2,500,000
		盧沄周(경제3)	2,467,000
		文盛鉉(산업공학4)	3,029,000
		朴大主(경제4)	2,467,000
		潘政佑(의학3)	4,527,000
		裴之賢(식품영양4)	3,005,000
		愼鍾譔(산업공학2)	3,029,000
		沈揆昇(윤리교육2)	2,467,000
		梁普現(경영2)	2,467,000
		梁鎮洙(농경제사회4)	2,467,000
		劉燦鍾(농경제사회3)	2,467,000
		尹基龍(자유전공3)	2,706,000
		尹泰雄(재료공학2)	3,029,000
		李秀彬(자유전공2)	2,467,000
		林智愚(인문1)	2,467,000
		張惠美(전기정보공학2)	3,029,000
		趙東熙(지구환경과학2)	3,005,000
		崔東赫(기계항공공학4)	3,029,000
		崔悠珍(조경지역시스템공학1)	3,005,000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林光		崔兌煥(건축3)	3,029,000
		韓晟洙(바이오시스템공학4)	3,005,000
安聖哲 ·孫潤淑	安聖哲(행정58-63) 유니온테크 회장 부인 孫潤淑여사	金承恩(국악4)	3,956,000
鄭志始	鄭志始(화학공학72-76) 세진에이엠 회장	李世薰(화학생물공학4)	1,000,000
		玄元智(화학생물공학碩博)	2,000,000
郭永駢	郭永駢(토목공학56-60)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郭珍源(건설환경공학1)	3,029,000
		金聖仲(물리천문1)	3,005,000
		송정민(건설환경공학4)	3,029,000
		李建永(건설환경공학2)	3,029,000
		李泳炫(물리천문2)	3,005,000
		李우람(건설환경공학3)	3,029,000
		李昌燮(전기정보공학1)	3,029,000
		張元二(건설환경공학1)	3,029,000
		丁敏煥(화학생물공학3)	3,029,000
		丁昌炫(생명과학1)	3,005,000
		趙扛峨(건설환경공학3)	3,029,000
		曹永在(건설환경공학4)	3,029,000
		崔나예(의학碩)	5,356,000
		崔智垠(수리학4)	4,692,000
		韓智秀(건설환경공학2)	3,029,000
李海遠	李海遠(행정51-55) 한국우드워드 회장	김희정(인류3)	2,000,000
		李始恩(영문3)	2,000,000
牧村 5父子	故 金道昶(법학43-47) 前법제처장·변호사 3남1녀	洪楠英(법학碩)	3,500,000
張學享	張學享(토목공학46-50) 삼양ENR 회장	姜尙律(건설환경공학碩)	2,000,000
		金相範(건설환경공학碩)	2,000,000
		이민주(건설환경공학碩)	2,000,000
李元珪	李元珪(농생물58-63) 前산림청 임업연구원 과장	정일철(농생명공학碩)	3,000,000
李相範 ·高姪錫	李相範(행정53-57) 변호사 부인 高姪錫여사	李世羅(디자인1)	2,500,000
保大院	보건대학원동창회	권보미(환경보건학碩)	1,000,000
		金惠林(보건학碩)	1,000,000
		趙明志(보건학碩)	1,000,000
		林燦祐(수리과학1)	1,000,000
數學科	수학과동창회	趙亢峽(수리과학3)	2,000,000
		蔡倫騎(수리과학1)	2,000,000
		崔光賢(수리과학1)	2,000,000
		黃南赫(수리과학1)	2,000,000
崔相弘	崔相弘(기계공학54-58) 한일MEC 회장	朴珍永(기계항공공학3)	3,029,000
		洪龍豹(기계항공공학4)	3,029,000
金貞姬	金貞姬(약학57-61) 시인	정윤주(서문4)	2,467,000
禹仁性	禹仁性(기계공학58-62) 인터비즈시스템 회장	河命秀(기계항공공학4)	3,029,000
陽泉	故 金閻澤(경대원68-70) 前양천장학회 이사장	金容世(체육교육碩)	1,000,000
姜信浩	姜信浩(의학46-52) 동아쏘시오그룹 회장	金娜希(자유전공4)	2,467,000
		金紋柱(산림과학2)	3,005,000
		金兌珉(재료공학碩博)	3,867,000
		朴美那(의학博)	4,979,000
		朴哉永(생물교육4)	3,005,000
		朴俊炫(컴퓨터공학碩博)	3,867,000
		裴한결(독문4)	2,467,000
		송승민(화학생물공학2)	3,029,000
		梁兌薰(자유전공3)	2,467,000
		魚丁允(노문4)	2,467,000
		吳恩京(약학3)	4,527,000
		유진선(경영1)	2,467,000
		李修知(경제3)	2,467,000
		李裕珍(경영碩)	3,140,000
		이재승(사회과학1)	2,467,000
		李在容(화학교육2)	3,005,000
		李鍾美(사회복지碩)	3,140,000
		이창훈(수학교육4)	2,475,000
		李弼圭(전기정보공학2)	3,029,000
		全時賢(물리천문5)	3,005,000
		趙顯勝(생물교육4)	3,005,000
		車承政(작곡3)	3,956,000
		洪碩基(경제碩)	3,140,000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吳應鉉 ·秋景玉	故 吳應鉉(섬유공학67-71) 前반월나염시법단지 대표 부인 秋景玉여사	金得浩(물리교육4)	3,005,000
崔喜藏	崔喜藏(섬유공학58-64) 대성사 대표	金成根(화학생물공학碩博)	3,867,000
그린	농대 그린장학회	安承讚(식물생산과학3)	2,500,000
李鍾憲 ·申甲享	李鍾憲(경제59-65) 덕인 회장 부인 申甲享여사	오강바아르(정치외교3)	2,000,000
松山	故 金炯珠(토목공학46-50) 前삼안전취 회장	金尙根(물리교육1)	3,005,000
		文徐淵(생물교육1)	3,005,000
		文智鉉(환경계획博)	3,851,000
		朴省煥(생물교육1)	3,005,000
		成泳濞(치의학碩)	5,000,000
		魏志銀(언론정보博)	3,140,000
		이지현(지구과학교육3)	3,005,000
		林珉琨(고교미술사碩)	3,140,000
		林希珍(지리교육1)	2,467,000
金相廈	金相廈(정치45-49) 삼양차 회장	姜潤求(경제3)	2,467,000
		金承喜(디자인3)	3,690,000
		邊根迎(산업공학碩)	3,867,000
		鄭다은(국사4)	2,467,000
		鄭珉鎬(행정博)	3,140,000
		鄭昭暎(디자인2)	3,690,000
		趙 賢(사회1)	2,467,000
		崔요셉(조선해양공학4)	3,029,000
		崔玟碩(과학교육碩)	3,140,000
金鐘燮	金鐘燮(사회사업66-70) 스페코·삼익악기 회장	곽예인(기악1)	3,956,000
		吉昭珩(언론정보4)	2,467,000
		金聖桓(물리천문1)	3,005,000
		김인수(농경제3)	2,467,000
		김희진(지리교육2)	2,706,000
		羅泰熙(바이오시스템4)	3,005,000
		文永敏(사회복지碩)	3,140,000
		朴貞妍(사회복지1)	2,467,000
		박현우(서양화3)	3,690,000
		양준영(체육교육4)	1,503,000
趙炳祐	趙炳祐(섬유공학59-64) 유풍 대표	尹吉炫(체육교육3)	3,005,000
		尹貞銀(기악博)	5,249,000
		이상호(기계항공공학2)	3,029,000
		정두영(언론정보4)	2,467,000
		鄭永均(물리천문1)	3,005,000
		崔永羨(기악2)	3,956,000
		함수연(기악博)	5,080,000
		홍진영(농경제사회3)	2,467,000
		황현환(성악3)	3,956,000
李在源	李在源(상학55-59) 원앤씨 대표	朴仁善(의학碩)	5,356,000
愼昌宰	愼昌宰(의학72-78) 교보생명보험 회장	吳修璧(경영2)	2,467,000
		崔洛誠(경영4)	2,467,000
		姜秉秀(의학碩)	2,500,000
		金度勳(의학碩)	2,500,000
		金東明(의학碩)	2,500,000
		金珉智(의학碩)	2,500,000
		金詩媛(의학碩)	2,500,000
		金瑩昊(의학3)	2,500,000
		金裕旻(의학2)	2,500,000
		南昌賢(의학碩)	2,500,000
		박경훈(의학1)	2,500,000
		朴藝松(의학碩)	2,500,000
		白夷濞(의학1)	2,500,000
		徐浚永(의학4)	2,500,000
		양호준(의학碩)	2,500,000
		禹智園(의학4)	2,500,000
		여무한(의학1)	2,500,000
		俞智善(의학碩)	2,500,000
		유호선(의학1)	2,500,000
		尹修彬(의학碩)	2,500,000
		이슬기(의학碩)	2,500,000
		이준희(의학4)	2,500,000
		李昌元(의학碩)	2,500,000
		李惠仁(의학2)	2,500,000
		장 관(의학4)	2,500,000
		張壽珉(의학碩)	2,500,000

본회 부회장에 鄭義和·劉正福등문



본회(회장 徐廷和)는 최근 제25대 부회장에 鄭義和 (HPM 3기) 국회의장과 劉正福 (행대원86-88)인천시장을 추가로 선임했다. 鄭부회장은 부산대를 졸업했으며,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 부의장,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 등을 지낸 5선 국회의원이다. 劉부회장은 연세대를 졸업한 후 경기도 김포시장, 농림수산식품부·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본회 일반장학생 명단

(괄호안 전공·학년)

- ▲인문대 김애니(노문2)·金材營(언어2)·南東佑(인문계1)·申潤承(독문2) ▲사회대 孔禹植(경제1)·金聖旻(경제2)·金正煥(지리3)·白采原(경제 석사과정)·尹貞彬(언론정보1)·李碩元(정치외교3)·任在然(사회2)·鄭恩在(인류2) ▲자연대 姜才旻(수리과학4)·金旻娥(지구환경과학4)·李承我(생명과학2)·秦松利(화학1)·崔河銀(물리전문1) ▲간호대 金秀娟(간호3) ▲경영대 李鍾碩(경영4)·崔宰榮(경영2) ▲공대 강준수(원자핵공학3)·柳陳錫(재료공학4)·文哉弼(전기정보공학4)·邊哲湜(원자핵공학 박사과정)·徐承源(기계항공공학1)·尹耕祐(화학생물공학1)·李榮主(건축3)·崔豪日(조선해

- 양공학1) ▲농생대 金炳淵(식품동물생명공학3)·金賢瑗(식물생산과학 석사과정)·朴俊炯(응용생물화학3)·임소현(식물생산과학2)·鄭鎭俠(산림과학4) ▲미대 李奎錫(동양화4) ▲법대 金秀娟(법학4)·文駿赫(법학 석사과정) ▲사대 金東彥(윤리교육4)·金惠媛(교육4)·朴珉岐(역사교육2)·李炳夏(국어교육3)·朱基佑(국어교육2) ▲생활대 金恩希(식품영양4)·장서홍(소비자아동4) ▲수의대 유보경(수의학3) ▲약대 홍아름(약학4) ▲음대 강윤광(성악 석사과정)·鄭靄泳(기악4) ▲의대 金信厚(의학4) ▲자유전공 柳靑樺(자유전공3)

각 단대(원)동창회 2학기 장학금 2백11명에 5억4백57만7천원

▲간호대동창회(회장 梁光姬) = 11명

: 7백40만원 ▲농업생명과학대동창회(회장 李賢秀) = 62명 : 1억3천1백만원 ▲법대동창회(회장 金東建) = 20명 : 6천6백87만3천원 ▲사대동창회(회장 李揆澤) = 11명 : 2천8백26만1천원 ▲상대동창회(회장 成耆鶴) = 77명 : 1억8천9백95만9천원 ▲생활대동창회(회장 崔明珍) = 4명 : 8백만원 ▲수의대동창회(회장 李文漢) = 2명 : 9백38만4천원 ▲약대동창회(회장 李慶秀) = 5명 : 5백만원 ▲의대동창회(회장 朴容炫) = 6명 : 3천만원 ▲치대·치대원동창회(회장 朴健培) = 4명 : 1천2백만원 ▲한대원동창회(회장 李完永) = 4명 : 4백만원 ▲ACAD동창회(회장 李弼雨) = 1명 : 3백만원 ▲SPARC동창회(회장 朴煥熙) = 1명 : 3백70만원 ▲SGS동창회(회장 文國現) = 3명 : 6백만원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愼昌宰		조경덕(의학碩)	2,500,000
		趙雅羅(의학碩)	2,500,000
		진한나(의학4)	2,500,000
		崔晨垓(의학碩)	2,500,000
		최세림(의학3)	2,500,000
		최수진(의학3)	2,500,000
		최현석(의학2)	2,500,000
		현지현(의학3)	2,500,000
		홍상빈(의학碩)	2,500,000
		黃榮煒(의학碩)	2,500,000
申明珪 ·朴冠鎬	故 朴冠鎬(화학교육47-51) 前동국대 명예교수 부인 申明珪(생물교육48-54) 前관악회 이사	김셋별(간호4)	501,000
		리사위터(체육교육碩)	3,841,000
		朴秀慙(사회교육1)	2,467,000
		변 번(교육碩)	3,140,000
		宣夏恩(과학교육3)	3,005,000
		孫源基(화학교육2)	3,005,000
		에바리리왕(국어교육博)	3,140,000
		李東周(독어교육4)	2,467,000
		이명봉(국어교육博)	3,140,000
		鄭奎賢(화학교육1)	3,005,000
		鄭邊敎(윤리교육3)	2,467,000
		鄭主鉉(체육교육1)	3,005,000
		崔書眞(경영3)	2,467,000
美大	미대동창회	尹詩淵(조소2)	1,500,000
		玄志仁(서양화4)	1,500,000
鄭潤煥	鄭潤煥(임학56-62) 일성화학 사장	金率怡(산림과학3)	2,000,000
		呂東建(산림과학2)	2,000,000
壽岩	權永吳(약학55-59) 덕홍상사 회장	김란희(분자의학碩博)	4,059,000
		金柄鎭(약학碩)	4,734,000
		裴綠園(약학碩)	4,734,000
		禹承贊(물리천문博)	3,841,000
오공 본드	金昌植(전기공학53-57) 오공 회장	金 勳(산림과학碩)	2,000,000
		李鍾圭(산림과학碩)	2,000,000
		李太炯(산림과학碩)	3,000,000
元日	鄭啓泳(상학61-66) 원일전선판매 회장	김도연(원자핵공학2)	3,029,000
		김형민(경영3)	2,467,000
		박상현(경제1)	2,467,000
		백인균(경영碩)	3,140,000
		송재현(농생명공학3)	2,467,000
		유현재(경영1)	2,467,000
		윤준연(전기정보공학碩)	3,867,000
		이용욱(경영4)	2,467,000
		정우진(경영3)	2,467,000
		정진욱(경영碩)	3,140,000
金貞植	金貞植(전자공학48-56) 대덕전자 회장	金基京(전기정보공학碩博)	3,867,000
		金基洪(전기정보공학碩博)	3,867,000
		金榮漢(전기정보공학3)	3,029,000
		楊昌穆(전기정보공학碩)	3,867,000
		吳恩鎬(전기정보공학碩)	3,867,000
		李東泳(전기정보공학碩)	3,867,000
		鄭有貞(전기정보공학2)	3,029,000
		洪仁智(전기정보공학4)	3,029,000
		황규묵(전기정보공학4)	3,029,000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徐廷和	徐廷和(법학51-55)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權珉暎(정책학碩)	3,140,000
		남은정(화학교육2)	3,005,000
		박재성(화학생물공학碩)	3,867,000
		손원우(법학碩)	6,716,000
池源哲	池源哲(축산73-77) 이지바이오시스템 회장	李基俊(식품동물생명碩)	3,000,000
趙弼濟	趙弼濟(조선항공46-50) 세양주택 회장	金勝奭(농경제사회4)	2,467,000
		朴成敍(인문계1)	2,467,000
		梁娜瑛(생명과학2)	3,005,000
		崔暢洛(전기정보공학2)	3,029,000
羅公默	羅公默(상학56-61) 코오롱그룹 고문	羅英仁(철학3)	2,467,000
		洪有辰(기악1)	3,956,000
柳重熙	柳重熙(기계공학53-57) 남성산업 회장	吳光錫(기계항공공학博)	3,867,000
具平會	故 具平會(정치47-51) 前E1 명예회장	高現錫(의학1)	3,103,000
		金旻奭(사회과학계1)	2,467,000
		박조아(간호1)	3,005,000
		신혜자(화학생물공학4)	3,029,000
		梁基元(서양사3)	2,467,000
		吳正玟(식물생산과학3)	2,000,000
		元雅榮(기악4)	3,956,000
		이현아(체육교육3)	3,005,000
		鄭舜瑛(조선해양공학3)	3,029,000
		鄭賢彬(전기정보공학2)	3,029,000
		曹 旼(환경계획碩)	4,010,000
		洪智恩(경제博)	3,140,000
		황서영(수의학2)	1,551,500
李禎相	李禎相(상학59-65) 보성 회장	宋瑞齡(경영3)	2,467,000
		宋政首(경영1)	2,467,000
李禮植	李禮植(약학46-49) 前극동제약 명예회장	鄭陳惠(경영1)	2,467,000
李埰鎬	李埰鎬(경제56-60) 대림산업 명예회장	郭南綸(식품영양4)	3,005,000
		金秀彥(응용생물4)	1,503,000
		金忍哲(건설환경공학3)	3,029,000
		閔世媛(컴퓨터공학1)	3,029,000
		朴胤京(국문2)	2,467,000
		배재범(경제3)	1,726,900
		禹昌熙(바이오시스템1)	3,005,000
		張閔善(정치외교4)	2,467,000
		朱二永(의학2)	5,089,000
		崔俊榮(기계항공공학2)	3,029,000
金文鉉	金文鉉(상학58-64) 대일씨앤아이 회장	김정열(협동과정조경博)	2,000,000
		李知垣(생명과학2)	3,000,000
李秀範	李秀範(행정56-60) 백림조세연구원 원장	朴廷珉(국악3)	3,000,000
朴熙伯	朴熙伯(의학51-57) 박희백정형외과의원 원장	李智暎(의학4)	5,089,000
河權益	故 河權益(의학57-63) 前중앙대 의무부총장	南宮惠輪(의학2)	5,089,000
張重桓	張重桓(의학69-76) 장중환산부인과의원 원장	金載佑(의학4)	3,500,000
		魏榮珍(의학2)	3,500,000
朴浩田 ·金英姬		姜準樺(동양화3)	3,690,000
		孔燦雄(물리전문4)	3,005,000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朴浩田 ·金英姬	朴浩田(경영62-66) 삼덕 회장 부인 金英姬(작곡62-66)여사	具滋潤(기계항공공학4)	505,000
		權賢修(간호4)	3,005,000
		金度勳(정치외교3)	2,467,000
		金應辰(정치외교4)	822,000
		박계영(에너지자원공학4)	3,029,000
		박제욱(경영3)	2,467,000
		趙源俊(건설환경공학3)	3,029,000
安 勳	故 安 勳(수의학53-57)	鄭錫好(수의학2)	2,700,000
趙慶一	趙慶一(약학64-68) 하나제약 회장	이다운(약학4)	2,500,000
卞柱仙	卞柱仙(영어교육60-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宋胤守(영어교육2)	2,500,000
		이재훈(영어교육3)	2,500,000
孫京植	孫京植(법학57-61) CJ그룹 회장	宋致憲(기계항공공학2)	3,029,000
張炳德	張炳德(화학교육53-57) 단일시스템 회장	金珍芽(지리1)	3,000,000
金炳贊	金炳贊(의학53-60) 제주한라대학 이사장	文景煥(경제1)	2,467,000
金東吉	金東吉(화학교육57-61) 경인양행 회장	徐敏錫(화학교육4)	3,005,000
斗山	朴容晟(경제59-65)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朴容炫(의학62-68) 연강재단 이사장 朴容晩(경영73-78) 두산그룹 회장	高政暎(경영4)	411,000
		金讚榮(경영2)	2,467,000
		金鉉根(의학碩)	5,356,000
		朴珍秀(경영4)	2,467,000
		유다애(의학碩)	5,356,000
洪禮杓	洪禮杓(치의학65-71) 홍예표치과의원 원장	河相雲(치의학碩)	3,000,000
嚴秉潤	嚴秉潤(외교60-64) 유라코퍼레이션 회장	姜東賢(서양사1)	2,600,000
藥大	약대동창회	申裕彬(약학3)	2,500,000
		尹卿喆(약학5)	2,500,000
劉常夫	劉常夫(토목공학60-64) 포스코 고문	金世赫(외국어교육계1)	2,467,000
		趙智賢(건축5)	1,515,000
李世榮	李世榮(약학57-61) 삼익제약 회장	김승연(제약5)	2,000,000
全東龍	故 全東龍(수의학52-56) 前동화농산 대표	李炳權(사회복지1)	2,467,000
		李承桓(농경제사회2)	2,467,000
		鄭鍾勳(환경계획碩)	3,841,000
		池完圭(전기정보공학4)	3,029,000
張明郁	사대 가정교육과 및 생활과학대학 동문 1백10명	高恩妃(식품영양4)	2,000,000
		李玟圭(소비자아동3)	2,000,000
		鄭珉圭(의류3)	2,000,000
		洪榮義(소비자아동2)	2,000,000
尹世榮	尹世榮(행정56-61) SBS미디어그룹 명예회장	金智燮(융합과학碩)	4,059,000
		李智英(법학碩)	6,716,000
		趙玟浩(성악碩)	2,540,000
河富烈	河富烈(경영74-78) 아섬 사장	李勳俊(경영2)	2,000,000
金秉秀	金夏永(의학70-76)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金廷埰(전기정보공학3)	1,500,000
李興鍾	李興鍾(역사교육54-58) 황산서원 원장	朴亭禹(역사교육1)	500,000

※ 총 1백35개 장학회 가운데 77개 장학회에서 장학금 지급.

KB금융그룹



동창회와 나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

KB국민 서울대총동창회카드 서비스

- ▶발전기금적립 - 카드이용금액의 0.2%를 매년 동창회 발전기금제공
- ▶동문회비면제 - 총동창회카드로 연간 일시불, 할부 1천만원이상 이상 이용시 차기년도 동문회비(3만원) 면제
- ▶주유할인서비스 - GS칼텍스 주유시 리터당 70원 할인혜택
- 월간 25만원 이내, LPG제외
- ▶쇼핑서비스 - 백화점, 할인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 ▶플래티늄 서비스 (플래티늄카드에 한함)
-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일시불, 할부 1천원당 1마일 제공
- KB국민카드 플래티늄 서비스 제공
- ▶기타 - 서울랜드 등 놀이공원, 영화예매 등 각종 할인혜택 제공
- ▶연회비

구 분	브 랜 드	실버회원	골드회원
기존연회비	국내용	3,000원	-
	국내외겸용	5,000원	10,000원
제휴연회비	아시아나플래티늄	-	90,000원

캐시백 프로모션 [행사기간] 2014.9.1 ~ 10.31

행사 기간 동안 **응모** 및
KB국민 서울대총동창회카드로
음식업종 이용금액 합산 10만원 이상 사용 시
1만원 캐시백!

▶행사기간 : 2014.9.1 ~ 10.31

▶응모방법 :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 내 이벤트란

※ 단, 행사기간 내 카드발급 고객은 별도 응모절차 없음.

▶음식업종 : 한식,양식,일식,중식,패스트푸드,뷔페,음식점

※ 2014.11.10 이내 매입분 기준으로

취소 및 카드 해지 시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함.

※ 캐시백은 카드 결제계좌에 2014년 11월 말일 이내 입금예정임.

※ 응모와 이용간의 선후 순서는 관계없음.

KB국민 서울대총동창회카드 간편신청방법 : 080-833-1688

이용 전 확인사항

연체료율은 연 23.5% ~ 29.9% 입니다.

상품관련 상세 사항은 신청 전 상품설명서, 약관,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 및 콜센터(1588-1688)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된 서비스 및 이벤트는 KB국민카드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값아야 할 빚입니다.

준법승인필 제2828호(2014.9.1)

※동문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總同窓會

KB국민카드

모교 역사 자료 수집에 동문 1백39명 기증



7면, 433호 8면, 434호 9면, 435면 6면, 436호 4면, 437호 5면 게재)을 통합해 현재까지 총 1백39명의 동문과 교직원들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南石熙(수학56졸)동문: 문리대 졸업기념 버클 1점(1956년) ▲李昌愛(기약53-57)동문: 졸업증서 ▲姜錫浩(화학공학 57-61)동문: 재학시절 노트류 20여권, 수업교재 2권 ▲柳魯相(경제 58-64)동문: 등록카드, 성적증명서, 상과대학 배지 및 버클 등 (사진) ▲林裁煥(농업경제 59-63)동문: 배지, 교모, 등

록카드 및 성적표(1959~1963년) 등 ▲鄭大有(응용미술61-67)동문: 교복 견장, 버클, 타이핀, 모교 개교 20주년 기념 학생작품 및 동창작품 전 목록 ▲黃貞玉(영어교육63-67)동문: 모교 故權重熙 前총장으로부터 받은 부친 황보성 씨의 감사패 동관(1963년) ▲陳承祿 前모교 법과대학장: 1950년대 학장 재직 당시 사진 1점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 연구기록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8월 1~31일 8명의 동문과 교직원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7월 31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1백 31명(본보 421호 8면, 422호 4면, 423호·424호·425호 6면, 426호 8면, 427호 7면, 428호 8면, 429호 4면, 430호 6면, 431호 3면, 432호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서정화)와 서울대(총장 성낙인)는 2015년에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 대상: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문서류: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시청각물류: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간행물류: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박물류: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 5)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 기간: 2014년 12월 31일까지 (마감기일 연기)

3. 수집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02-702-2233 팩스: 02-703-0755 E-mail: webmaster@snu.ac.kr

주 소: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6호

담당자: 임성용 차장 핸드폰: 010-9238-9759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02-880-8819 팩스: 02-884-7149 E-mail: archives@snu.ac.kr

주 소: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역사연구기록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정화·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재)관악회 제120차 이사회

이사에 모교 李哲洙교수 선임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徐廷和)는 지난 8월 29일 서울 도화동 SNU장학빌딩 보나베파에서 제 120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 심의를 통해 임기가 만료된 曹基浩이사를 만장일치로 재선임했으며, 당연직 보직 변경에 따라 이사직을 사임한 모교 金

炯周교수를 대신해 발전기금 李哲洙(법학78-82)상임이사를 선임 이사로 추인했다.

이날 모임에는 徐廷和이사장, 孔大植상임이사, 李禮植·韓斗鎭·曹基浩·權永昊·鄭世煜·安聖哲·李炯均·鄭啓泳·朴明潤·金秉順이사, 李相赫·朴英俊감사 등이 참석했다.



孔大植·尹勤煥·林光洙·孫一根동문, 池憲晞회장

林光洙명예회장 흉상 제막

본회 林光洙명예회장 흉상 제막식이 지난 8월 27일 충북 청주그랜드CC 로비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尹勤煥 前 농수산부 장관, 흉상건립위원회 池憲晞회장, 吳炳夏 前청주시장, 李泰鎭 前청주상공회의소 회장, 6·25참전유공자회 이방호 회장 등 지방 유지와 가족들이 참석해 林명예회장의 흉상 제막을 축하했다.

흉상은 모교 조소과 李容德(조소77-82)교수가 제작했으며, '고향발전의 끈질긴 집념과 열정으로 경부고속철 노선을 청주권/오송역으로 돌리다'란 문구를 새겼다.

마닐라 중심으로 70여 동문 교류

필리핀지부동창회

필리핀지부동창회(회장 康昶翼)는 오는 9월 20일 오전 11시 마닐라 이스트릿지GC에서 상과대학 주관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필리핀지부는 1990년대 초반 결성돼 현재 46학년부터 01학년까지 70여 명의 회원이 교류하고 있다. 산하에 공대, 농대, 상대, 본부대 등 4개의 단과대학별 동문회가 조직돼 있다. 본부대는 공대, 농대, 상대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학 동문들로 구성돼 있다.

회원들은 마닐라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보건기구(WHO) 아태지역본부에서 근무

하는 동문들이 다수를 이루며, 그 외 글로벌 기업 주재원, 외교관, 개인 사업을 하는 동문들이 포진돼 있다. 4개 단과대학이 돌아가며 골프, 등산 등의 분기별 모임을 주관하고 있으며 매년 부부동반 송년회, 동문가족 여행 등의 행사로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康昶翼(수의학72-76)회장은 "앞으로는 교민사회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해 동문회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지부에 관심 있는 동문들은 ADB 수석이코노미스트로 활동 중인 鄭會潤(경제88-92)간사장에게 문의(hyeong@adb.org)하면 된다. (南)



장학생 77명에 2억여 원 지원

상대동창회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成耆鶴)는 지난 8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2014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범수(경영4년)군 등 경영학과 장학생으로 선발된 40명에게 9천8백68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채정현(경제4년)군 등 경제학부 장학생 37명에게 9천1백27만9천원을 지급했다.

또 모교 경영대 및 경제학부에 각각 1천만원의 학술연구비를 전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安台鎬(경제45-53)·韓準石(상학49-53) 명예부회장, 오라관광 金正銀(경제52-56)前대표 등 70여 명의 동문과 재학생이 참석했다.



장학금 1억3천여 만원 수여

농생대동창회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李賢秀)는 지난 8월 25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대 203동 101호에서 상록문화재단 韓仁圭(축산52-56)초대 이사장, 동창회 鄭潤煥(임학56-62)명예회장, 李賢秀(농화학60-64)회장, 柳曉熙(농공학63-67)상임이사, 모교 농생대 李鶴來(임산가공75-79)학장 등 20여 명의 임원 및 교수진과 장학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동창회 장학재단인 상록문화재단 장학금과 일성장학금을 통해 재학생 62명에게 1억3천1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李賢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학재단을 맡으면서 장학금을 몇몇 학생에게만 줄 게 아니라, 전 학생에게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며 “전 후배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 날을 가슴에 품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李회장은 “이번 학기부터 서울 중동고 출신 모임인 백농회와 수원농업생명고를 졸업한 李舜衡동문께서 이곳 출신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출신별 고등학교 외 동아리·지역별 모임을 갖고 있는 동문들에게도 해당 모임의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적으로 여유있는 동문들을 각 기수별로 5명 정도씩 추천받아 총 1백여 명의 장학재단 자문위원회를 구성, 재단의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유황 온전옥 등을 즐기며 늦여름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번 행사의 저녁 만찬은 법대와 간호대동창회에서 푸짐한 바비큐와 음식을 준비해 동문들의 입을 즐겁게 했다.

행사를 위해 李瑞熙(행정70-74)회장, 朴惠玉(간호69-73)수석부회장과 文炳吉(수학61-65)·金東槿(전기공학66졸)·朴正模(사회66-70)·金昌伸(신문75-79)·車奇玟(제어계측85-89)·金良禧(기약81졸)동문 등이 수고했다.



재학생 20명에 장학금 전달

법대동창회

법과대학동창회(회장 金東建)는 지난 8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2014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장학생 등으로

선발된 20명의 학생에게 6천6백87만3천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金東建회장은 “서울대 법대가 더욱 서울대 법대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더더욱 타 로스쿨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문 작품

지상전시회



추추는 소나무, 화선지에 채색, 69×50cm, 2011년

朴 載 萬 作

〈작가약력〉

- ▲1987년 모교 동양화과 졸업
- ▲개인전 6회(서울, 인천)
- ▲한국화—새로운 형상과 정신전, 일수회전, 황해미술전, 한국화—젊은 세대전, 수렴과 발산전, 인천미술대 표작가 초대전, 남동구문화 예술회전 외 단체전 다수
- ▲現한국미협 회원, 모교 미술대학 출강, Pinemosaic Art 소장

9월 25일~10월 2일 임원展 개최

미대동창회

미술대학동창회(회장 劉仁洙)는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도화동 SNU장학빌딩 베리타스홀에서 기금마련을 위한 19대 임원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대한민국예술원 閔庚甲(회화53-57)회원을 비롯해 동국대 全榮華(회화49-56) 명예교수, 강원대 李雲植(조소56-61)명예교수, 田相秀(회화50-55)·李永燦(회화54-58)·李鳳烈(회화57-63)화가 등 동창회에서 고문, 부회장, 이사를 맡고 있는 1백여 명의 동문들이 참여했다. 작품 판매 대금의 50%는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劉仁洙회장은 “국내 화단에서 존경받는 원로 작가들을 비롯해 여러 젊은 동문들이 작품을 출품했다”며 “다양한 미술 작품을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흔치 않

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막식은 9월 25일 오후 4시에 열리며, 전시 기간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50만원 소품전’ 열어 흔울회

모교 미대 여성 동문들로 구성된 흔울회(회장 徐東喜)는 오는 9월 17~22일 서울 관훈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제37회 정기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62명의 작가들이 서양화, 동양화, 조소, 공예 등의 작품을 출품할 예정이다. 또 미술 애호가들을 위해 ‘50만원 소품전’이 별도로 진행된다.

徐東喜회장은 “결속력을 강화해 보다 영향력 있는 여성 미술인 단체로 발전하기를 소망한다”며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사절과 문화원장을 비롯해 아트페어 관련 담당자 등을 초

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0년 모교 미대 출신 여성 동문 12명이 모여 결성한 흔울회는 현재 1백50여 명의 회원이 모여 매년 정기전과 기획전을 열고 있다.

입학 55주년 여행 논의 법대 59학번 동기회

법대 59학번 동기회(회장 權東烈)는 지난 7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식당 장원에서 입학 55주년 기념 행사 준비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權東烈(법학59-63)회장, 沈泳秀(법학59-64)총무, 賈在桓(법학59-63)·金鍾求(행정59-63)·金泰武(법학59-63)·任大和(법학59-63)·劉和善(행정59-63)동문 등이 참석해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부부 동반 여행에 대한 준비 사항을 논의했다.

동기회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충남 태안, 서산 등 서해안 일대를 여행할 계획이다. (南)



키르기스스탄 의료봉사 다녀와

치대·치대원동창회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朴健培)는 지난 8월 22일 모교 연건캠퍼스 치의학대학원에서 키르기스스탄 해외의료봉사 발대식을 거행했다.

9월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이번 봉사 활동에는 朴健培(치의학70-76)회장을 비롯해 金載英(치의학71-77)·李昌鎬(치의학76-82)·白哲鎬(치의학77-83)·金珍泰(치의학78-84)·朴喜運(치의학78-84)·全惠林(치의학83-89)·張美慶(치의학84-90)·張卜

淑(치의학84-90)·張素儔(치의학84-90)·朴相燮(치의학88-94)·金相道(치의학90-96)·이장석(치의학93-99)등문 등이 참가했다.

의료봉사는 현지 치과의사 및 스태프들을 위한 각 전문과목별 강의와 고려인 및 장애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임상진료를 병행해서 실시했다.

이날 朴健培회장은 “치의학대학원, 치과병원과의 긴밀한 협조로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현지 주민과 의료진들에게 최선의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8월 18일 모교 연건캠퍼스 본관 교수회의실에서 2014년 2학기 교외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동창회 장학금 외 교내장학금을 통해 26명의 학생에게 총 5천7백20만원을 수여했다.



60年史 편찬·백두대간 원류 탐사

문리대 OB산악회

문리대 OB산악회(회장 李昇昊)는 산악회 창설 6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30일 서울 이촌동 아태향에서 백두대간 원류 탐사대 발대식 및 60년사 편찬회의를 개최했다.

李昇昊회장은 “아카데미 알파니즘을 구현한다는 가치를 내걸고 우리 산악회가 출발한 지 60주년을 맞이해, 우리의 산하에 대한 헌없는 사랑으로 그동안 했던 국내 초등코스들을 회고하는 산행과 백두대간의 원류를 찾아 흥안령과 알타이산맥을 학술탐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원류 탐사의 일환으로

曹圭培(식물66-70)·金學中(화학66-71)·吳虎鍾(지리66-70)등문 등이 알타이와 고비 일대의 산을 오른다. 국내 울산암 등 초등코스 복기 등반 및 보수에는 崔弘健(행정62-66)·박명원(물리88-93)등문 등이 참여한다.

60년사 문집은 金哲載(물리67-76)등문 등 10여 명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해 산악회 역사, 산행일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6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李昇昊(수학68-73)회장, 尹錫泰(물리62-71)·曹圭培·吳虎鍾·李根億(식물66-70)·崔仲基(해양69-73)·崔鴻(수학66-74)·全遇賢(사법81-85)등문 등 회원 30여 명이 2천5백여 만원을 후원했다.

만평

李元馥



매월 모임 가지며 동기에 과시

쌍육회

상과대학 66학번 동기 모임인 쌍육회(회장 李德鎬)는 지난 8월 14일 서울 광화문 오양회참치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金東洙(경제66-70)·申炳浩(무역66-70)·李景台(경제66-70)·李魯昌(경영66-70)·李文源(경제66-70)·李尙桓(상학66-70)·李永義(경영66-70)·李候相(무역66-70)·張孟烈(무역66-70)·鄭光燮(상학66-74)·鄭成煥(경영64-70)·鄭容鎬(경영64-70)등문 등이 참석했다.

모임 후 張孟烈등문의 복춘 한옥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張등문의 부인이 준비한 한과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李尙桓등문은 쌍육회 홈페이지(class66.org)에 “80세가 된 선배한 분이 ‘근력 운동을 계속해 건강은 문제가 없지만 밥 같이 먹을 친구 없는 것이 참 쓸쓸하다’고 했다”며 “나이 들면 더 외로워질 테니 친구 모임을 잘 이어가도록 하

자”고 모임 후기를 남겼다.

쌍육회는 동기회 내에 두목회, 삼금회, 골프회, 기우회, 산우회 등의 소모임을 통해 매월 한 차례 이상 만남을 가지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전국 친선골프 우승 조경학과동창회

조경학과동창회(회장 金在東)는 지난 8월 26일 경기도 여주 캐슬파인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14회 전국 조경학과 친선골프대회에서 단체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가천대, 경희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신구대, 영남대, 전남대, 청주대 등 9개 대학 조경학과 출신 71명이 참가했다.

이날 李世根(조경77-81)·李仁幸(조경78-82)·金在東(조경78-85)·金鍾元(조경80-84)·趙炳宇(조경81-85)·柳一善(조경81-85)·諸相佑(조경85-89)·이준(조경94-98)등문이 출전했으며, 이준 등문은 출신원의 기쁨을 맛보기도 했다. (南)

since 199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업계 최고의 성혼율을 자랑
- 고급인의 네트워크를 통한 클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몰라자 7F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S. Noble



청소년 리더십 콘퍼런스 열어

ROTC동문회

ROTC동문회(회장 朴君哲)는 지난 8월 1~3일 경기도 용인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중·고교생 30명과 모교 ROTC후보생 등 재학생 멘토 5명이 함께하는 ‘청소년 리더십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매출 GDP의 22% 차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李俊植(14기)수석부회장, 宋宇輝(21기)사무총장, 黃普鉉(24기)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과 모교 인문학연구원 朴培亨(29기)교수가 각각 강의와 지도교수를 맡았다.

콘퍼런스에 참여한 임승희 학생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팀 스스로 논제를 정하고 문제점을 찾아 토론하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생각해 보면서 리더로서 가져야 할 자질과 팀원 사이에서 배려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주제에 대해 다방면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邊>

• 대단한 수발력

휴일이라 중국집에 짜장면을 배달시켰는데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왔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중국집에 전화해서 사장을 바꾸라고 소리 치고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왔다고 따지자, 가만히 듣고 있던 중국집 사장 3초간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하는 말 “네..., 축하드립니다. 랑수육에 당첨되었습니다.”

• 아는 사람

부부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됐다. 지나가던 트럭이 놀라서 창문을 열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 머저리, 열간이, 쪼다야, 똑바로 건너!” 이 말을 듣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당신에 대해 어쩔 그렇게 잘 알죠?” <독자제보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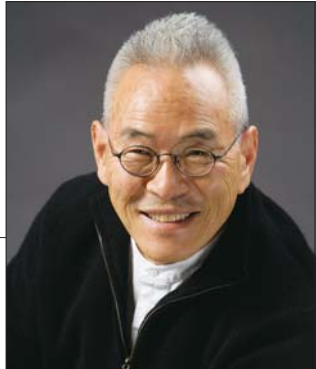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부산지부동창회 權達述회장
(前신라대 교수·조각가)

부산지부동창회는 최근 신임 회장에 權達述(조소62-66)前신라대 교수를 선출했다. 현재 조각가로 활동 중인 權회장은 2년의 임기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데 대해 “당혹스러우면서도 영광스런 권유였다”며 “파할 수 없는 운명으로 생각하고 열정을 바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동창회 소개를 해주신다면, “연중 행사

로 10월 아유회 겸 체육대회에서 화합을 도모하고, 12월에 동문 가족의 밤 행사를 가집니다. 매 행사마다 동문들의 참여와 협조로 다양한 경품 등을 곁들여 풍성하게 꾸리고 있지요. 행사 진행 비용 및 사무실 운영비, 임원회의비 등 연간 3~4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임원진은 부회장단, 자문위원과 사무처장 등의 집행부로 구성돼 있는데, 향후 40~50대 주축으로 부회장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 활성화 방안은.

“먼저 선·후배 간의 세대 차이에서 오는 괴리를 해소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최근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어서인지 과거에 비해 동창회의 활기가 예전만 못해 보인다고도 해요. 젊은

“젊은 세대 참여 유도로 활력 도모”

분위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기존과 다른 다각도의 유인 방안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마침 부산관악회, 관악산우회, 마로니에클럽, 신진세대 주축의 관악세대까지 결속력이 강한 산하 단체들이 동창회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 단체들의 월례회 등에 참석해 회장님들과 외연 확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 기억에 남는 동창회 일은, “회장 선출 전까지 7년간 재부경 미술대학동창회 회장을 맡으면서 단대 자체 행사들을 부산지부동창회의 행사와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동창회 내 가장 활성화된 단대로 인정받은 것은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지요. 동창회 차원의 문화·예술 활동은 매우 비람직한 활동 아이템이지만 예술 행위는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는 만큼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대 동창회의 협조를 얻어 여러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남 울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성장한 權회장은 모교 재학 당시 국전 입선 및 특선을 통해 미술계에 데뷔했다. 신라대 미술학과 교수 및 예술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부산조각가 협회 창립 회장 및 부산미술협회 이사를 맡아 부산 미술계를 이끌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한국현대조각초대전 운영위원장을 지내는 등 한국 미술의 발전에 힘쓴 공로로 2009년 황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오는 9월 20일부터 약 두 달간 열리는 2014 부산비엔날레 운영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쏟고 있다. <秀>

9.10 월 행사 캘린더

9월 28일(일) 오후 6시

• 환대원동창회 홈커밍데이

관악캠퍼스 환경대학원
<문의 : 02-880-5669>

10월 6일(월)~12일(일)

• 의대동창회 함춘미술전

연건캠퍼스 함춘회관 가천홀
<문의 : 02-762-9051>

10월 10일(금) 오후 5시

• 간호대동창회 동문의 날

연건캠퍼스 간호대 103호 강의실
<문의 : 02-740-8843>

10월 9일(목) 오전 10시

• 수의대동창회 정기총회

관악캠퍼스 수의대 스코필드홀
<문의 : 02-880-1230>

10월 12일(일) 오전 10시

• 약대동창회 동창의 날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잔디밭
<문의 : 02-701-3456>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왜 모두들 1위라고 말할까?
1위처럼 보여야 당신이 신뢰하니까.
누구나 1위에 가입하고 싶어 하니까.
하지만 이미 당신은 알고 있다.
1위는 원래 하나뿐이란 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보자.
한국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결혼정보회사 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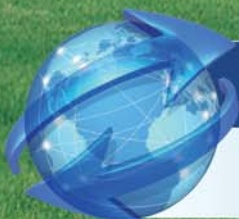
• 국내지사 서울 / 수원 / 인천 / 천안 / 대전 / 전주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창원 • 해외지사 뉴욕 / LA / 뉴질랜드

메 듀오
1577-8333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 SGI서울보증이 함께 합니다

지난 45년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사랑으로 SGI서울보증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SGI서울보증은
대한민국 대표 보증기관으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고객의 성공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Your Best Credit Partner
SGI서울보증



Global 대표사무소

• 뉴욕 • 하노이
• 북경 • 중동

Global신용등급
S&P A Fitch AA⁺

세계 4위
보증기관
(ICISA 회원사 기준)



취업할 때 필요한
신원 보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
모기지 보증



세입자들을 위한
전세금반환 보증
전월세자금대출 보증



자동차를 구입할 때
오토론 보증



납품/공사 계약 체결 때
이행 보증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Counter Guarantee
(구상보증)

“안녕하세요”



(주)해오름종합식품 **최상만 대표** 이름 석 자를 걸고 **고춧가루** 한 톨까지 **국산100%**로 여러분의 김치를 책임지겠습니다.

다가오는 **김장철!!!** 집에서 힘들게 김장하지 마시고, 해오름을 믿고 이용하여 주세요.

저희 해오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정한 **HACCP인증업체**이며,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전통식품으로 품질이 인증된 업체입니다.

모든 원부재료 및 농수산물을 직접 매입하며, 싱싱한 재료만 사용합니다.

고춧가루도 회사 내에 방앗간 시설을 갖추고 질 좋은 국내산 고추만을 매입하여 직접 빻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원료중 강원도 고랭지 배추와 겨울철 해남 월동 배추를 연중사용하고 천일염 신안소금과 국내산만을 고집합니다.

주문시 당일 생산된 김치가 발송되며, 또한 저희 서울대학교 원우회원님들께서 당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후 주문하실시 맛보기 김치를 서비스로 조금 제공해드리겠습니다.(서비스김치의 종류는 그날그날 생산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페이지(www.ehaeorum.co.kr 혹은 네이버에 “해오름김치” 검색)를

통해 주문시, 메모 란에 “서울대학교 원우”라고 꼭 표기해주셔야

맛보기 김치가 나갑니다.^^

전화 주문 시에도 꼭 “서울대학교 원우”라고 말씀해 주셔야

맛보기 김치가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밥상위에...

해오름순우리김치

해오름F&B에서는 행복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well-being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well-being 시대에 발 맞추어 저희 해오름F&B는
보다 건강하고 믿을수 있는 김치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들빼기



나박김치



돌산갓김치



백김치



생포기김치



해오름 F&B

(주)해오름종합식품 대표이사 **최 상 만** (문헌지식학과 2기 / M. 010-3771-4446)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1동 173-362 2층 TEL : 032-571-0073, 571-0660 FAX : 032-571-0440

화제의 동문

모교 동양화와 李鍾祥 명예교수

一浪 李鍾祥(회화59-63)회백, 그의 이름 앞에는 수많은 ‘최초’, ‘최고’란 수식어가 붙는다. 생존하는 유일의 회화 영정 작가, 최초의 고구려벽화 연구 작가, 미대 출신 첫 모교 박물관장, 최초의 철학박사 미대 교수, 독도를 처음 회화에 담은 작가, 진경산수의 대가 등등.

金炯榮시인은李화백을 두고 “수없는 회오리바람의 늪에서 활화산의 마그마처럼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미완의 구도자, 뼈를 깎는 실험 정신으로 따를 수 없이 홀로 가더니만 어느 사이 무법의 문턱에 들어선 대자유인”이라며 “욕심 많은 ‘金剛力士’”라 불렀다. 지칠 줄 모르는 老화백의 무한 에너지에 대한 찬사이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기도 한李화백은 요즘 경기도 파주에서 한국 천주교 기록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교황 방한으로 천주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를 타 작업 중에는 좀처럼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그를 8월 26일 서울 평창동 카페에서 만났다.

‘金剛力士’에 비견되는 기운

李화백은 충남 당진의 천주교 유적지인 신리성지에 조성된 다블뤼 주교 기념관에 다블뤼 주교와 순교성인 4위의 주요 행적을

新里성지서 한국 천주교 역사 기록화 작업
진경산수 대가...독도 회화에 담은 첫 작가

기록화로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전쟁박물관, 대법원 청사, 삼성 본관, 국립극장 로비 등에 걸린 작품을 본 동문은 잘 알겠지만 그의 작품 중에는 4m가 넘는 것들이 많다. 이번에 그리는 기록화도 1천호가 넘는 대작이다.

“큰 작품을 하다 보니 늘 공간이 문제입니다. 평창동 작업실에선 무리가 있어 서울 근교에서 찾다 파주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오래전 딸아이를 먼저 하늘로 보내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화 데레사상’을 제작하던 곳과 멀지 않더라고요. 하나씩 ‘내게 바칠 작품을 만들 곳이니 이곳에서 하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예술을 종교로 삼아왔던 그에게 자신을 닮아 미대에 입학했던 딸의 죽음은 큰 고통이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딸아이의 생전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신앙 체험을 하게 되고 “안 본 색, 안 본 세계가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종교적 영성이 바탕이 돼야 참된 작품도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작업 중인 순교성인들의 행적을 연구하며 한국의 자생 천주교 역사를 그림에 담으면서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화 초상화를 그린 사람은 손만 만져도

부를 하는 거예요. 국제적인 약속을 꼭 지킬 일이 있어서 그렇다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원들이 가져왔다는 돈에 사인을 해줬는데 그걸로 1백배를 받고 팔아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모은 돈으로 중국 낙양성에 소학교를 지어줬더라고요.”

지인들에게李화백은 ‘맥가이버’로 통한다. 기계에 능통하기 때문. 자동차 수리도 웬만해서는 손수 해결한다.如初 金甁顯선생은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구상화가 金泰선생은 자동차에 이상이 생기면 그를 불렀단다.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15년 이상된 구형이지만 외관도 깨끗하고 속도 말짱하다. 그의 손목에는 스마트시계, 가방에는 늘 태블릿 PC가 있다.

“루브르미술관에서 제 작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의뢰했을 때, 3D 설계 프로그램으로 작업해 루브르미술관 카루젤 성벽에 걸 작품과 공간구조를 보여줬죠. 깜짝 놀라더라고요. 건축물을 지을 때도 3D로 제가 직접 설계를 합니다. 물질의 원리를 이해해야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변화무쌍한 자연을 담는데 과학적 지식이 없다면 반쪽짜리 작품밖에 표현할 수 없죠.”

이날 인터뷰는 5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마쳤다. 남다른 성장 과정부터 우리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자생미술에 대한 예술세계까지 쉼 없이 이어졌다. 모교 박물관장시절 미술관 유치와 미대 석·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한 이야기 등은 풀어내지 못해 아쉽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南)

경상대 인문학 한국 崔元碩 교수

우리나라 국토에서 산지는 약 70%를 차지한다. 경상대 인문학(HK) 崔元碩(지리82-89)교수의 저서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한길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마음 속에는 더 크게 산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출간된 이 책은 우리 겨레와 산이 함께 진화해온 과정을 문화적·역사적으로 밝혔다. 주로 자연생태학적으로 이뤄져온 산 연구를 인문학의 관점에서 풀어내 화제가 됐다.

저자인 崔동문은 ‘山家’를 자처한다. 그에게 이 책은 “20여 년간 산을 공부해온 삶의 궤적이자 분신”이다. 崔동문의 산 이야기는 오랜 시간 맺어온 한국인과 산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 민족에겐 ‘산천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한반도의 산악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산이 삶의 원형 공간으로서 집단 무의식 속에 자리잡은 거죠. 도시나 마을 공간을 구성할 때는 꼭 산의 역할을 생각했습니다. 중국 사상인 풍수도 우리 산천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의 틀로 활용했고요.”

풍수학자 崔昌祚 교수 사사

‘산천 유전자’가 가장 뚜렷하게 발현된 것이 ‘造山’의 전통이다. 선조들은 먼저背山臨水에 입각해 고을을 형성했다. 그래도 지형·지세가 부족한 곳은 흙이나 돌을 인공산처럼 쌓고 나무를 심는 조산을 통해 보완했다. 崔동문은 “우리네 조산은 천연스러

운 멋이 있다”며 “현장 답사를 가면 마을숲이며 돌무더기들이 인공인지 자연인지 구분이 힘들 정도로 자연을 슬며시 이어왔다”고 감탄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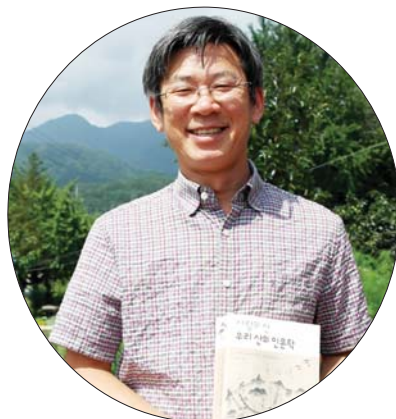
崔동문은 한국 풍수지리학의 대가인 崔昌祚(지리69-73)前모교 교수에게서 석사과정부터 풍수를 배웠다. 서양 근대지리학이 어딘가 맞지 않는 듯처럼 불편했던 그에게 가뭇에 단비같은 가르침이었다. 명당에 집착하는 중국 풍수도 체질에 맞지 않았다. 좋지 않은 땅도 명당으로 만드는 우리나라의 지혜로운 비보풍수를 전공으로 택했다.

20년간 지리·풍수 연구한 자칭 ‘山家’
“산의 인문학적 전통 계승·회복에 진력”

한국 풍수의 핵심 키워드인 산을 주제로 모교에서 석사 논문을, 고려대에서 박사 논문을 썼다.

답사를 위해 전국은 물론 세계 곳곳의 산을 발로 뛰는가 하면, 고지도와 지리지 등 방대한 고문헌도 살펴봤다. 그 결과 이미 한국에 ‘산의 인문학’이라고 할 만한 훌륭한 전통 지식이 축적돼 있음을 확인했다. 그의 연구는 풍요로웠던 산의 인문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회복하는 의미도 지닌다.

요즘 崔동문은 지리산의 문화를 연구 중이다. 지리산은 오랜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이 깃들어 살아온 전형적인 ‘사람의 산’이다. 사람들의 생활 터전과 산의 자연 생태·역사·문화·종교 등이 거대하게 결합해 있



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악산에 대한 생각이 공명했다.

지리산문화 세계유산 제안

“전체적인 형세를 보면 어머니 등에 아이가 업히듯 관악산이 모교를 업은 모양입니다. 등에 업을 정도면 어느 정도 큰 아이지요. 품에 있을 때보다 자립심도 길러지고, 세상을 내려다보고 호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등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칫 오만해질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다소 알쏭달쏭한 대답을 내놓은 崔동문은 “풍수를 전혀 모르는 아내가 말해주 것”이라며 웃음지었다.

오랜 연구 기간만큼 두꺼운 그의 저서지만 책장을 덮을 때는 종주를 마치고 하산하는 듯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어느덧 가을 산이 성큼 눈에 들어오는 계절을 맞아 崔동문은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요즘 들레길이나 제주 올레길 많이들 즐겨 찾으시죠. 주민들도 만나고, 삶의 자취와 문화를 느끼는 산행 풍속도는 ‘遊山’보다 옛 선비들이 즐겼던 ‘遊山’에 가까운 듯합니다. 등산 장비를 갖추듯이 산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유산화한다면 산행이 훨씬 풍요로워지고, 사람과 산 사이의 관계도 이상적으로 진전되지 않을까요. 제 연구가 거기에 일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秀)

화제의 동문



Da Nang

보물찾기는 해적만의 것이 아니다
예스러움이 때론 새로움이 된다
추억의 장르는 다양할수록 좋다

하나의 색깔로
정의할 수 없는 당신은

A1

당신에겐 시공간을 넘나드는
무지개 빛 여행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낭만 다낭 자유여행]

누구나
전마다의
여행이 있다

베트남



찾아보세요 당신만의 여행을
travel.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호찌민, 하노이, 다낭, 나트랑 /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분단 70주년 맞는 내년까지 ‘통일헌장’ 마련”

동문을 찾아서

통일준비위원회 鄭鍾旭부위원장

지난 7월 15일 朴槿惠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등 50명의 위원 구성을 발표함으로써 평화통일 청사진 구축을 위한 ‘民’과 ‘官’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 8월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통일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鄭鍾旭(외교59-65)부위원장을 만나 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鄭부위원장은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이념과 정당의 차이를 넘어 국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21세기형 통일 청사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담 : 李啓聖(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문 부위원장에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30명,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 19명 등 총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국회의 여·야 정책위 의장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과 정부가 같이 참여하는 방대한 기구는 처음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 이후 여러 차례 통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통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왔으며, 지난달 초에 진행된 1차 전체 회의에서도 그와 관련해 중요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 공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 저도 언론지문단에 포함됐습니다만, 통일준비위원회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기존의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신다면.

“한마디로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라 할 수 있지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해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저희가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생각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통일부나 민주평통과의 업무 중복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소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며 오히려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 업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내비게이션이 돼 달라”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1차 회의 때 하신 말씀인데요, 통일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길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통준위가 그 길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서 모두에게 행복한 통일이 되게 해달라는 의미였지요. 특히 스마트한 내비게이션을 주문하셨고, 그에 따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통일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를 구체화한 ‘통일헌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통일부·민주평통과의 시너지 기대 ‘官·學’ 두루 거친 외교 전문가

“지난 1989년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만들어져 그동안 통일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2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냉전체제가 붕괴했고, 중국과 북한의 상황도 크게 변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내로 내부적으로 청사진을 만들어 이를 내년 초에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이념이나 정당의 차이를 넘어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21세기형 통일 청사진을 만들어 ‘분단 70주년’을 맞는 내년 8월 즈음에 국민들에게 제시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구성했습니다.”

—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북한측은 사실상 ‘흡수통일’에 대한 포석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실제 연설 내용을 살펴보면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 협력 구상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도적 문제 해결 방안, 민생·경제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 등 크게 세 가지로 나

• 鄭부위원장은

경상남도 거창 출신으로 모교 외교학과를 나와 미국 하와이대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일보 기자생활을 시작으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외무부 본부대사, 주중 대사, 국가안보자문단 외교분과 자

문위원 등은 물론 모교(외교학과, 1977~1993)를 비롯해 국내외 여러 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최고의 중국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모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인천대 석좌교수 겸 중국학술원장을 맡고 있다.

니어 있지요. 특히 북한에서 취약한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지원과 철도, 도로망 건설, 자원 개발 등을 통한 경제 건설을 촉진하는 방안, 환경생태문제 해결 방안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와 관련해 북한은 우리와 함께 평화통일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협력 대상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 5·24조치 해제로든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요.

한 동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반도 통일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관심을 두고 있지요. 가장 민감한 나라가 중국인데, 최근 한·중 관계가 많이 좋아지면서 중국의 입장에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통일이 주변 국가에 부담이 아닌 많은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게 된다면 그들의 생각도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은 과거만큼 큰 관심사항이 아닌데요, 그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과 통일을 바라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맞물려 상당히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지금의 젊은 세대는 통일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저희 세대와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대 간 통일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평화통일 준비를 하는 것 역시 통준위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 앞으로 우리가 평화통일을 하는 데 있어 모교와 동문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내년이면 분단 70년이 됩니다. 더는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안 된다는 각오와 인식을 동문 모두가 다시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경제적인 혜택도 많이 얻을 수 있으며,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역시 통일입니다. 더욱이 분단국가의 모습을 후세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이야말로 통일을 이뤄나가는 적기라고 보기 때문에 동문들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두고 통준위 활동에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邊廷朱기자·정리= 林香默기자)



KET, It's perfect!

World best

KET의 첨단기술로 만듭니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력으로 미래형 자동차 핵심부품 기술에서
최첨단 IT 분야까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무한 경쟁시대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부문 ▶차세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핵심 부품 기술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 기술
■전자 부문 ▶디지털 전자용 고정밀 · 고집적 커넥터 기술

■자동차 부문

■전자 부문



BUD/PRA



Battery Fuse Terminal



Charge Coupler



Impact Sensor



Display



Mobile



A.V.N



한국단자공업주식회사
KOREA ELECTRIC TERMINAL CO.,LTD.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38 <http://www.ket.com> TEL_032-814-9981 FAX_032-814-8860 E-mail:webmaster@ket.com



JOINT YOOCHANG
THERMAL SYSTEMS CO., LTD.
www.ycthermalsystems.com



THE WORLD BEST JOINT LEADER

30년 이상의 역사,
3,000개 이상의 프로젝트 납품.

대표적 적용 사례 (빌딩)

- Burj Khalifa (세계 초고층 빌딩, 162층)
- 인천 국제공항
- 잠실 롯데 슈퍼타워
- 부산 국제 금융센터
- 63빌딩
- 킨텍스
-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 아이파크 해운대
- 삼성 타워 펠리스
- 동북 아시아 트레이드 타워

대표적 적용 사례 (플랜트)

- 호남 한국 화력발전
- 울산 환화 케미칼
- 여수 열병합 발전소
- LG 화학
- 고려아연
- S-Oil
- OXY Oman

**세계 품질의 신축이음관 선두기업으로
정부품질 인증과 UL 인증을 포함한
25개 특허, 41개의 시험성적서 및
품질인증서를 보유.**

조인트 유창 써멀 시스템 (주)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품질 향상으로
신축이음관 설치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월등한 신축량으로 조인트 설치 개소를
줄여 시공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편리한 유지보수 기술을
적용시켜 안정적이고 고 능력의
piping system을 구축하였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 개발로 품질 향상을
통해 2006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버즈칼리파에 납품을 성공적으로 하였고,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신축이음관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인트유창의 주요 생산제품

■ 플랜트용



Spare Pak
Slip Joint



Spare Pak
Ball Joint



Spare Pak Multi Joint
(초고온, 고압용 LS NIKKO 적용)



Dual Pak Underground
Slip Joint

■ 빌딩용



Dual Pocket
Multi Joint



Dual Pocket
Slip Joint



Intergral Spare Pak
Slip Joint



Dual Pak Underground
Ball Joint



Vico Joint



成樂寅총장 식사 <요지>

여러분은 수년 동안 모교에서 지식을 얻 마하고 그 지식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충 실한 준비기간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현재를 축복하면서, 여 러분의 미래에 대해 설렘과 기대를 갖고 애 정 어린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내외적 상황 속에서 미래는 그 만큼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창조적 혁신 을 꿈꾸는 지식인에게, 불확실성은 불안 의 근거가 아니라 도전의 에너지입니다.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 내는 주인공으로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여러분 앞에 다가올 불확실성과 도전을 기꺼이 즐겨워하는 자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최고의 지식은 사회봉사와 인류공헌을 위해 만들어지고 쓰이는 것입니 다. 여러분의 창조적 혁신으로 만들어낸 그 지식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 에 닿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민족의 동량, 사회의 중심으로 드높은 자부심을 갖되 자신의 지식과 열정을 공동선을 위해 공헌하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웃의 이야기를 더욱 귀담아 듣는 피 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평화가 늘어나 고, 여러분이 향하는 곳에 희망이 늘어나길 기원합니다.



徐廷和동창회장 축사 <요지>

모교는 세계가 공인하고 존중하고 있는 참된 교육기관으로 여기서 연마된 세계인 적 역량이 졸업생 개개인의 이상을 여하히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는 오늘의 끝 없는 축복과 함께 무한정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행복을 갖습니다.

세계는 지금 역사적 전환기를 강요당하 고 있습니다. 무한정적인 국제 경제경쟁, 첨단과학기술과 지하자원의 획득이 가위 전시상황을 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으로 인적자원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이 자원마 저 고갈되면 무엇으로 국가와 사회가 유지 발전될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데 대한 신진대사적 참신한 인재의 새로운 공급 원입니다.

서울대인의 가치는 지성, 겸손, 봉사의 변함없는 철학을 지니고 꾸준 히 대를 이어 실천, 향상시켜 선진사회를 조속히 조성해나가는 데 있습니 다. 또한 여러분은 세계인의 능력을 이미 지녔습니다. 세계의 지성인과 세계의 미래를 토의할 수 있어야 아시아의 평화와 확보될 수 있는 한반도 문제의 영구 설계가 이룩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는 여러분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찬 란한 결실을 맺어 자유민주 평화통일의 길이 열려나갈길 바라마지 않습 니다.



해동경사연구 成百曉소장 축사 <요지>

옛날 북송의 명재상인 범중엄(范仲淹)은 ‘선비가 조정에 있으면 행여 군주가 잘 못할까 걱정하고, 초야에 있으면 행여 백 성들이 잘못될까 걱정한다. 그리하여 천 히의 걱정을 먼저 걱정하고 천하의 즐거움 을 뒤에 즐겨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것을 ‘선우후락(先憂後樂)’이라 합니다. 정치가는 국민들이 모두 행복하고 나서 행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누

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노자에 ‘대지약우(大智若愚)’라 했습니다. ‘큰 지혜는 어리석은 바보처 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논어에도 ‘무벌선(無伐善)’이라 했습니다. 자신 의 잘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영재들입니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남 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표본이 돼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부디 한 개인의 행복에 만 신경쓰지 말고 인간 본연의 심성을 되찾아 주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복의 터전을 쌓는 길입니다.



제68회 후기 학위수여식 ... 2천3백64명 배출

成총장 “소통과 화합의 촉매 역할 해주길”

모교 소식

모교(총장 成樂寅)는 지난 8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68회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모교 成樂寅총장, 보직교수를 비롯해 본회 徐廷和회장, 孫一根상 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학부모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金秉文교무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박사 5백22명, 석사 9백89명, 학사 8백53명 등 총 2천3백

64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成樂寅총장은 식사를 통해 졸업 생들에게 “겸손하고 운유한 자세 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촉매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지성과 공공성으로 무 장된 ‘선한 인재’의 모범을 앞장서 서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본회 徐廷和회장은 축사에서 “세계 일류대학 젊은 학사·석사·박사의, 여러분들처럼 엘리트 졸 업생들의 놀라운 지성이 국제적인 품운계 역할을 해서 앞으로의 방 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며 “인류 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여러분에 게 크나큰 통찰력과 구상력을 기 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동경사연구소 成百曉소 장이 특별 연사로 초청돼 老子와 論語 등 다양한 한문 고전의 경구 들을 소개하고 “복을 누리는 사람 이 되기보다 복의 터전을 쌓는 사 람이 돼 달라”고 축사했다. <식 사·축사 요지 참조>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대한민 국 인재상을 받은 權恩眞(자유전 공09입)양이 졸업생 대표로 연설

했다. 權양은 어려웠던 가정형편 과 자유전공학부 개설 첫해 입학 생 시절의 막막함을 돌아보며 “아 무것도 없었기에 무엇이든 있을 수 있다는 값진 희망을 모교에서 얻었다”고 말해 감동을 전했다.

이날 모교 음악대학 남성중창단 이 축가로 ‘You raise me up’과 ‘즐겁게 노래하자’를 불러 청중들 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 식전 행사에서는 기악과 崔景煥(작곡72 -80)교수가 지휘하는 ‘SNU WIND 앙상블’이 축하 연주를 펼쳤다.

각 단과대학별 총장상과 동창회 장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문대 : 유지은- 박준민 ▲사화대 : 권민정- 이재익 ▲자연 대 : 황우성- 한석희 ▲경영대 : 서상훈- 구종현 ▲공대 : 이신우- 함동효 ▲농생대 : 박정현- 김 현진 ▲미대 : 고대웅(총동창회장 상) ▲법대 : 김은성- 김태욱 ▲사대 : 박민선- 박지현 ▲생활대 : 박소영- 박혜연 ▲약대 : 이원 형(총동창회장상) ▲음대 : 김도 연(총동창회장상) ▲자유전공 : 김인균(총동창회장상) <秀>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구 분	8월 졸업	총회원
인 문 대 학	89	12,136
사회과학대학	99	16,371
자연과학대학	75	12,040
간 호 대 학	5	3,727
경 영 대 학	53	7,782
공 과 대 학	198	46,492
농업생명대학	78	22,172
문 리 과 대 학	-	9,731
미 술 대 학	37	5,737
법 과 대 학	33	17,223
사 범 대 학	95	27,270
상 과 대 학	-	6,723
생활과학대학	40	4,584
수 의 과 대 학	-	2,461
약 학 대 학	7	6,380
음 악 대 학	38	8,160
의 과 대 학	-	11,808
치 과 대 학	-	6,050
자유전공학부	6	86
대 학 원	1,209	101,243
경 영 대 학 원	-	701
교 육 대 학 원	-	653
국 제 대 학 원	68	1,014
보 건 대 학 원	40	3,731
사 법 대 학 원	-	508
신 문 대 학 원	-	264
행 정 대 학 원	125	5,121
환 경 대 학 원	38	2,950
치 의 학 대 학 원	-	526
의 학 대 학 원	-	125
융합과학대학원	25	174
경영전문대학원	1	852
법학전문대학원	5	411
소 계	2,364	345,206
준 회 원	-	13,338
(특 별 과 정)	884	27,381
총 계	3,248	385,925

盧泰敦교수 등 27명 퇴임

“노고에 감사합니다”

지난 8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는 成樂寅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및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 27명의 정년· 명예퇴임식 이 열렸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盧泰敦(국사학)교수, 金聖坤(영문학)교수, 李誠元(영문학)교수, 朴圭圭(미학)교수, 林玄鎭(사회학)교수, 全京秀(인류학)교수, 安正善(생명과학)교수, 尹淳昌(지구환경과학)교수, 金

宇哲(통계학)교수, 金明模(건설 환경공학)교수, 李商郁(전기정 보공학)교수, 曹裕根(컴퓨터공 학)교수, 尹寅燮(화학생물공학)교수, 李志華(화학생물공학)교수, 張昊翼(디자인학)교수, 韓文熙(불어교육)교수, 權五良(영 어교육)교수, 金敏子(의류학)교수, 黃俊淵(국악)교수, 朴永培(의학)교수, 殷熙哲(의학)교수, 李聖喆(의학)교수, 李允浩(의학)교수, 張善吾(의학)교수, 曹洙哲(의학)교수, 朴鍾和(환경조경학)교수

패션그룹 형지 崔炳五회장

생활과학대학에 3억원 출연

패션그룹 형지 崔炳五(AFB 3기)회장이 지난 8월 26일 모교 생활과학대학에 3억원을 기부했다.

패션그룹 형지 계열사인 에리트베이직에서 2억원을 기부하고 崔炳五회장이 사재로 1억원을 출연해 조성된 이번 기금은 생활과학대학의 교육·연구 활동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成樂寅총장은 “패션그룹 형지 기금을 통해 모교 생활과학대학은 수준 높은 연구 성과와 인재 배출

로써 대한민국 대표 인재 양성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崔회장은 “모교가 국가경쟁력을 이끌어가는 리더와 패션산업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금이 쓰이길 바란다”며 “패션그룹 형지 역시 대한민국 패션유통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崔회장은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AFB)동창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웰에이징시니어산업최고위



成樂寅총장(左)이 崔炳五회장에게 협약서를 전달했다.

과정(AWASB)동창회장을 맡고 있다.

崔회장이 설립한 패션그룹 형지는 숙명여대 사트렌관, 전주대 패션트렌드센터 등 국내 주요 대학에 강당과 강의실을 설립하고 장학 사업을 통해 인재 양성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해동과학문화재단 金貞植이사장

학술정보실 건립에 30억원 쾌척

해동과학문화재단 金貞植(전 자공학48-56)이사장(사진)이 지난 6월 27일 모교에 해동학술정보실 건립기금으로 30억원을 기부했다.

모교는 이날 협약식을 열고 金이사장이 조성한 기금을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 등 주요 단과대학의 해동학술정보실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金이사장은 이번 기금 조성 이전에도 모교 관악캠퍼스 해동학술문화관 및 해동학술정보실 1·2호관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약 1백억원을 모교에 기부했다. 한양대, 광운대, 고려대 등 국내 주요 대학에 해동학술정보실을 건립하면서 인재 양성에 앞장섰으며,



1990년 해동과학문화재단을 설립하고 해동상을 제정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金이사장은 1972년 인쇄배선회로기관(PCB) 제조·판매 업체인 대덕전자를 설립했다. 전자기기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이룩한 공로로 한국 전자산업의 기술개발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다.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

베트남서 봉사활동

글로벌사회공헌단(단장 金星煥)은 한국수력원자력의 후원으로 ‘제8기 스누봉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8월 9~20일 베트남 라오까이성에 위치한 스펀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제8기 스누봉사단은 모교 교육



학과 劉聖相교수를 단장으로 치과 보존학교실 李雨哲교수, 구강해부학교실 李勝杓교수, 예방치학교실 韓東憲교수, 사단법인 빗물모아지

구사랑 김익규 실장, 김용환 연구원 등 전문가를 비롯해 모교 재학생 23명으로 구성됐다.

봉사단은 의료·빗물·분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구강보건진료 및 빗물을 정화해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사진>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과 함께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등의 시간을 가졌다. <秀>

재학생의 소리

We love, We play, We make

국내 문화 콘텐츠 수출 총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게임 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 신선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게임이라는 문화 콘텐츠의 잠재력에 관심을 가지며, 즐기는 것을 넘어서 제작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동아리가 저희 SNUGDC입니다.

저희 SNUGDC는 2009년에 처음 창립된 유일한 게임 개발 관련 중앙 동아리입니다. 중앙 동아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과의 구성원들이 모여 종합 예술인 게임을 완성해 나가는 데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구조를 만들 프로그래머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양새를 갖추도록 도와줄 그래픽 팀원과 결맞은 음악을 만들어 줄 사운드 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매 학기 방학 때마다 게임 회사 NEXON의 후원을 받아 게임 제작 발표를 하고 있으며, 다른 우수 학교의 동아리들과 경쟁을 하며 서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에 계신 모교 선배님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게임 개발에 대해 심도 깊은 가르침을 얻고 있습니다. NEXON 외에도 스마일게이트, 파티 게임즈와 같은 국내 유명 회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게임 업계 인재 양성과 동아리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학내에서의 인지도를 위해



卞智嫻

(아동가족10입)

게임개발동아리 SNUGDC 회장

동아리 내에서 제작한 게임을 학내 커뮤니티에 배포해 홍보한 적도 있으며, 게임 업계에 계신 선배님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종종 얻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저희 동아리지만,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동아리방이 없어서 동아리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의 특성상 한 자리에서 함께 의견을 조율하며 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한 동아리방이 없어 그를 얻기 위해 열심히 동문서주하고 있으며, 이에 현재 학교 안팎의 선배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가 동아리방을 얻고 더 나아가 국내의 게임 업계의 큰 밑거름이 되도록 선배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How to increase the precision of optic flow?" 자연어 검색

2. 검색 결과: 규격 2천건, eBook 6천종, 특허 3만 건, 논문 2만 건

4. Stereo image capture 및 moving image capture 기능을 통한 향상 : 미국 특허

3. 질문에 대한 Answer 카테고리 자동 활성화

5. Compensated HS 계산 알고리즘을 통한 정확도 향상 : IEEE Article

IHS Knowledge Collections

전세계 규격, 특허, 논문, eBook 등 1억 건 이상의 공학 전문 자료들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검증된 시멘틱 검색기술로 통합 검색 결과 이상의 해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무인 비행 드론이나 재난구조용 로봇 등이 실시간으로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 중 하나인 Optic Flow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질문한 실제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검색엔진의 원문 요약 기능인 Dynamic Summary를 비롯하여,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일어 검색결과들을 자유롭게 번역해주는 번역기능 등 강력한 기능들을 Trial 신청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IHS, IEEE SA, Kitis 産學研情報(株) KITAS Info. & Co., Ltd. Authorized Dealer in Korea 대표 홍영표 (국제대학원 GLP 21기)

환자가 더욱, **행복**한 병원 대림성모병원입니다



진료과목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진단영상의학과 (PET-CT, 초음파, MRI, CT)

진료센터 / 진료클리닉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 종합건강검진센터
중풍수술센터, 치매지원센터, 하지정맥류클리닉, 다한증클리닉



2013 메디컬코리아 대상
4년연속 갑상선센터부문 선정



2013 헬스조선
메디컬·건강산업 대상 수상



2011 대한민국
고객감동병원 NO.1 선정



진료예약 및 상담 (02) 829-9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657(대림동) www.drh.co.kr
(서울대학교 졸업생 우대)



SolutionPartner

앞선 기술마다 LG화학이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도 수많은 화학이 필요하듯이
세상의 모든 기술, 화학이 완성합니다
석유화학, 정보전자소재, 전지까지-

LG화학의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더 앞선 삶을 누리세요



콩트 릴레이

아담을 위하여

金 碩 禧(불문72-76)

작가·번역가



이 짧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마리의 개다. (이 개를 나는 아담이라고 부르겠다. 물론 아담이라는 이름에 별다른 의미, 이를테면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인 의미가 함께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다른 이름, 가령 멍멍이나 천둥이, 쫘, 나폴레옹 같은 이름으로 불러도 무방하다.)

개라는 종족은 평균수명이 1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인간에 비해 훨씬 조숙하기 때문에 올해 세 살인 아담은 개새끼는 아니고 개청년쯤 된다. 그리고 아담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함께 태어난 형제자매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

할 수도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폭력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담은 지금도 그 엄청난 폭력을 겪고서도 이렇게 살아 있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

“아니, 요게 대들고 있네!” 주인 녀석은 얼굴에 잔뜩 피를 모으며, 얼굴·가슴·다리·등·옆구리를 어디고 할 것 없이 마구 때리고 걷어찼다. 아담이 비명이라도 지르려고 입을 벌리면 “그래, 또 대들어봐라. 아예 죽어서 보신탕으로 먹어줄 테니.” 하면서 고무신짝을 벗어들고 대갈통을 후려갈겼다. “그래, 어디 한번 죽여봐라, 이 백정놈아. 네놈 뱃속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속

현상 붙은 사나이처럼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살 아래 찌주머니가 여문 뒤에는 지나치는 마을에서 하룻밤 풋사랑을 나눈 적도 몇 차례 있었다. 유랑길에 마주친 마을에 들어가 몇 마디 크영거리면, 꼬리를 사려 사타구니 밑으로 감추지 않는 사내가 없었고, 꼬리를 흔들어 사타구니를 드러내지 않는 계집이 없었다. 비록 풍찬노숙의 신세일망정 자유분방하고 모험적인 아담의 삶이 그들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인 모양이었다. 이를테면 서부영화에서 먼지바람을 등 뒤에 거느리고 나타난 총잡이처럼.

그 사나이처럼 쌍권총을 차고 있지는 않지만 아담은 꽤 성능이 좋은 말총과 물총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말슴씨를 두고 이를 것 같으면 ‘천일야화쯤 저리 가라’일 정도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하룻밤에도 울고 웃기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재주는 타고났다기보다 그동안 겪어온 거친 생활이 그런 능력을 키워준 셈이다. 아담이 문필가적 재능을 타고났더라면 그는 아마 수십 권의 베스트셀러를 써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은 글로 쓰는 대신 말로 떠벌인다. 그게 성미에도 맞다. 그뿐인가! 물총 하나만은 겹보기에다 그럴듯해 그 속 맛

지 살았는지조차 모르는 애비의 무용담을 들려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벌써 1년도 더 지난 일이다.

그때 아담이 떠나야겠다고 말하자, 그녀는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렇게 물었다.

“떠돌이생활이 지겹지도 않아?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면 불편하지도 않아?”

“물론 불편하지. 네 말대로 집도 절도 없이 떠돌다보면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무섭고... 비를 피할 수도 없는 덩불이나 바위틈에서 하룻밤을 떨며 지새기도 해야 하고, 끼니 하나 찾아 먹으려고 산 하나를 꼬박 넘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지. 하지만 몸은 춥고 배고픈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드넓은 바다, 드넓은 하늘이 그득 차오르는 걸 느낄 때가 있어. 똥구는 똥말이 하나, 바람에 뒤척이는 나뭇잎 하나, 컹전을 어지럽게 떠도는 풀벌레 하나조차 아주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 있는 것이든 죽어 있는 것이든, 하나 같이 제 나름의 삶을 가지고 있다는 공감을 주고받게 되는 거야. 나보다 강한 것들도 나보다 약한 것들도, 하나의 조화 속에서 잘나고 못난 것 없이 서로 공생할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다는 생각 말이야. 자연은 본디 그렇게 생겨났어. 인간들은 저들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만물이 평등하게 태어난 거라고. 이 땅, 이 우주는 인간들만의 것이 아니야. 우리도 그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 바꿔 말하면 인간만이 존재하는 우주란 삭막하고 무의미한 사막일 뿐이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줘? 게다가 현실은 현실이잖아. 인간들은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린 거기에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그건 힘이 아니야. 폭력이지. 폭력 하면 주먹질이나 채찍질 같은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것만이 폭력은 아니야. 달콤한 식사와 포근한 잠자리,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를 길들여 지배하기 위한 미끼, 이를테면 속에 마약이 들어 있는 당의정에 불과해. 오히려 더 위험한 폭력인지도 모르지. 겉만 보고는 속기 쉬우니까. 게다가 한번 맛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훨씬 힘들니까. 인간들 세상을 봐도 그래. 안락에 젖어 지내는 인간들은 일어설 줄 몰라. 그네들 말로 혁명을 꿈꾸는 것은 언제나 꾀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거든. 그들은 그렇게 일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곤 하지.”

아담은 그렇게 안락하고 단란한 가정이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떠났다.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선 용기 있는 선각자들은 언제나 외롭고 험난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마련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는 한낱 꿈으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 가능성을 걸고 온몸을 내던지는 이들이 없다면 이 세계의 역사는 아직도 중세의 암흑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시작은 언제나 어렵다. 그러나 시작이 없는 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담은 그의 이름처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아담은 오늘도 도시의 뒷골목이나 시골의 텅빈 들녘을 혼자서 정처 없이 걷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다가 당신과 마주치면 싱긋 웃어 보이며, 함께 가자고 유혹할지도 모른다. 아담을 만나는 이에게 행운이 있을진저!

“

인간들은 저들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만물이 평등하게 태어난 거라고.

이 땅, 이 우주는 인간들만의 것이 아니야.

우리도 그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

바꿔 말하면, 인간만이 존재하는 우주란 삭막하고

무의미한 사막일 뿐이야.

”



일러스트레이터 蘇余廷 (디자인09-13)

는지 전혀 모른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고 싶지도 않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게 개팔자일 테니까. 모르는 게 상책이라던데,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인가.

아담이 기억하고 있기로 그의 신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다지 축복받은 꼴은 아니었다. 흔히 말하기를 새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 마주치는 세상의 첫 모습은 눈부신 햇살이라든가, 어미의 풍만한 젖가슴이라든가, 귀를 간질이는 새들의 지저귀미라든가, 산들바람에 실려온 꽃내음 따위의 찬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이미지와 결합돼 있다고들 하는데, 그러나 아담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최초의 세상 체험은 옆구리에 와 박히던 발길질의 고통이다. 글썽 그제 개의 숙명인지는 몰라도 아담의 어린 시절은 온통 그러한 폭력의 흔적들로 얼룩져 있다.

언젠가 한번은 발길로 걷어차는 주인에게 대들었다가 더욱 혼쭐이 나게, 아예 목줄을 기둥에 붙들어 매인 채 그야말로 오뉴월 개패듯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는 눈물은커녕 비명 한번 내지를 겨를도 없이 혼쭐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정말이지 그렇게 폭력을 가

창을 겪어줄 테니.” 하고 악을 쓰며 뺨대보았지만, 그놈의 짙긴 가죽끈으로 목이 팍 졸라 매인 상태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웅크리면 웅크린다고 발길질이고,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서 깔아뭉갸. 그뿐만 아니라 네 다리를 꺾어서 꿰어앉힌 다음 허벅지와 정강이 사이에 굵은 각목을 질러 넣고는 위에서 자근자근 짓밟기도 했다.

그날 밤 아담은 마침내 그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다. 말 그대로 야반도주하면서 아담은 자기를 그토록 괴롭힌 주인 녀석의 신발 짝을 물고 나와, 그 집 문앞에서 걸레가 다 되도록 질근질근 씹고 뜯고 찢고 밟았다. 아담이 개소년 품세를 겨우 벗어난 때였다.

그뒤로 아담은 그야말로 한 마리의 부랑아였고, 좋게 말하면 정처 없는 방랑자였다. 발길 닿는 대로 걷고 헤매다가 지친 몸 그대로 쓰러져 누우면 그곳이 잠자리였고, 또 이 골목 저 골목 어슬렁거리다가 아무거나 입안에 쑤셔 넣으면 그것이 식사였다. 몸은 비쩍 말랐지만 눈은 형형한 빛으로 번뜩였다. 그러한 몰골 때문에 아담은 간혹 들개나 늑대로 오인돼 추적을 받기도 했고,

을 보고 싶어 안달하는 계집들이 아담을 차지하려고 저들끼리 싸움판을 벌일 정도다.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서방이 보는 앞에서 짐을 질질 흘리는 계집이 한둘이 아니었고, 주인집에서 제사나 잔치에 쓰려고 장만해둔 음식을 몰래 훔쳐다 아담에게 갖다 바치는 일빠진 계집도 부지기수였다.

계집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가령 시에서 서쪽으로 한참 들어간 어느 마을에서 만났던 계집은 지금도 이따금 눈앞에 어른거리곤 한다. 음식을 잘못 먹고 배탈이 나서 똥굴고 있는 아담을 안아다가 보살펴주고 오래오래 함께 살자던 순돌이네가 정식으로 짝지어준 계집이었다. 석 달쯤 함께 지냈다.

그러나 결국은 떠돌이병이 도지는 바람에 그 집에서도 나왔는데, 떠나던 날 밤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길로 자신의 퉁퉁 부은 배를 가리키며, 새끼들이 태어나는 것만이라도 보고 떠나라던 계집의 모습을 아담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 아마 그녀는 지금쯤 갸웃거리며 젖을 빨아대는 새끼들에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죽었는

동 정

수 상

▲李世中(행정53-57 현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본회 부회장)=지난 8월 12일 제18회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실천대상 수상.

▲孫世一(정치54-59 청계연구소장)=지난 8월 14일 사단법인 대한민국의사랑회로부터 제7회 雲南 李承晚 애국상 수상.

▲金璟東(사회55-59 모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오는 10월 8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로부터 제28회 인촌상(인문·사회 부문) 수상.

▲金城完(화학59-63 한양대·유타주립대 석좌교수)=최근 데루모 과학기술진흥재단으로부터 제2회 데루모(テルモ) 국제과학상 수상.

▲安秉永(행정원65졸 연세대 명예교수)=오는 10월 8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로부터 제28회 인촌상(교육 부문) 수상.

▲郭明圭(사회64-68 소설가)=최근 계간 '시선'으로부터 '춧불 켜 밤' 등의 작품으로 시 부문 신인상 수상.

▲高永宙(화학공학67-71 前서울 남부지검장·KCL 법무법인 대표)=지난 8월 14일 사단법인 대한민국의사랑회로부터 雲南 李承晚 애국상 수상.

▲崔楊河(금속공학69-73 한샘 회장)=오는 9월 17일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제23회 다산경영상(전문경영인 부문) 수상.

▲愼昌幸(의학72-78 교보생명보험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8월 20일 한국경영학회로부터 제29회 경영학자 선정 경영자 대상 수상.

▲柳振寧(화학공학75-79 LG화학 기술연구원장)=오는 10월 8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로부터 제28회 인촌상(과학·기술 부문) 수상.

▲盧在賢(국어교육77-84 중앙북스 대표)=오는 9월 17일 일한문화교류기금으로부터 제15회 일한문화교류기금상 수상.

▲李 根(경제79-83 모교 경제학부 교수·슈페터학회 차기 회장)=지난 7월 27~30일 독일 예나에서 열린 국제슈페터학회 총회에서 슈페터상 수상.

▲黃性基(사법88-92 한양대 교수)=지난 8월 27일 한국언론법학회로부터 제13회 철우언론법상 수상.

▲尹東漢(AFP 2기 한국콜마 회장)=오는 9월 17일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제23회 다산경영상(창업경영인 부문) 수상.

▲明魯昇(법학65-69 前법무부 차관)=지난 7월 28일 사단법인 한중문화협회 제9대 회장에 선출.

▲崔吉善(조선공학65-69 前현대중공업 사장)=지난 8월 12일 현대중공업 조선·해양·플랜트 부문 총괄회장에 선임.

▲成耆鶴(무역66-70 영원무역 회장·상대동창회장)=지난 8월 19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제13대 회장에 선임.

▲安京煥(법학66-70 모교 법학부 명예교수)=지난 8월 12일 국제 인권법률가 모임인 '국제법률가 위원회(ICJ)' 첫 한국인 위원에 선임.

▲鄭日采(경대원67-69 다산그룹 명예회장)=지난 8월 11일 충남 금산 소재 진산대 유지재단 상임고문에 추대.

▲金樂薰(섬유공학70-74 동덕여대 교수)=지난 8월 23일 임기 4년의 동덕여대 제8대 총장에 취임.

▲金龍鳳(의학70-76 前서울백병원장·前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장)=지난 8월 1일 안전행정부 산하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에 취임.

▲車仁濬(의학71-77 인제대 교수·특별자문위원)=지난 8월 4일 임기 4년의 인제대 제6대 총장에 선출.

▲張南植(사회73-77 前LIG손해보험 사장)=지난 8월 18일 임기 3년의 손해보험협회 회장에 선출.

▲洪基勳(해양73-7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지난 8월 17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에 선임.

▲李泰植(토목공학73-78 한양대 교수)=지난 8월 20일 임기 3년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에 선임.

▲金東旻(법학75-79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지난 8월 12일 인천지방법원장에 임명.

▲李興模(무역75-81 前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발권국장)=지난 8월 4일 한국은행 부총재보에 임명.

▲尹汝杓(제약76-80 충북대 교수)=지난 9월 3일 임기 4년의 충북대 제10대 총장에 취임.

▲姜炯周(법학77-81 前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장)=지난 8월 12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

▲金潤榮(기계설계77-81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지난 8월 22일 대한기계학회 제60대 회장에 선출.

▲金奎玉(경제79-83 前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지난 8월 1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선임.

▲許承虎(경영79-83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본보 논설위원)=지난 8월 21일 한국신문협회 신문발전연구소 초대 소장에 선임.

▲金秀顯(토목공학80-84 세종대 교수)=지난 8월 20일 임기 3년의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 제14대 원장에 임명.

▲朴炯柱(물리82-86 포스텍 교수)=지난 8월 10~11일 열린 국제수학연맹 총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집행위원에 선임.

▲宋彥錫(공법82-86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지난 8월 19일



SMART Technology for the Future

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대덕

한국 PCB산업을 대표하는 대덕은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50년 동안 국내 PCB산업을 선도해왔으며, 이제는 세계 디지털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최고 PCB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전에서 모바일, 자동차, 그리고 미래형 첨단기기까지 사람을 위한 디지털 세상,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창조적 기술 진화로 미래의 스마트 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DAEDUCK PORTFOLIO



Automotive PCB



HDI-Rigid Flex



Flexible PCB



Rigid Flexible PCB



High Density Interconnection



Multi Layer Board



LED Metal PCB



Package Substrate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선임.

▲金鍾德(대학원04-09 前한국디자인학회·홍익대 교수)=지난 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취임.



▲金範年(AMP 76기 한국수력원자력 엔지니어링 본부장)=지난 8월 12일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 겸 발전본부장에 선임.



행 사

▲卞柱仙(영어교육60-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본회 부회장)=지난 8월 11~13일 국회 헌정기념관, 아이코리아에서 '대한민국 아동안전은 녹색불입니까'를 주제로 제11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개최.



▲元佑鉉(행정61-65 고려대 명예교수)=최근 장인 李仁範 前연세대 음대 학장의 탄생 1백주년 기념으로 '테너 이인범과 순교자'(철우한빛원판) 출간.



▲宋明晃(농가정63-67 동덕여대 명예교수)=지난 8월 20일 서울 논현동 뉴힐 탑호텔에서 부군(吳弘根 前청와대 공보수석)의 저서 '민주주의의 배신'(산해판)과 본인의 저서 '웃은 사람이다'(이담북스판)로 철순 기념 출판기



념회 개최.

▲鄭昭盛(불문64-69 단국대 명예교수·소설가)=지난 8월 28일 경기도의정부시 신흥로 베히라인 음악학원에서 장편소설 '설향'



남송회 개최.

▲金仁圭(정치69-73 디지털저널 리즘연구소 이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8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사이버커뮤니



케이션학회와 공동으로 '소셜미디어와 한국 저널리즘'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李榮祚(정치73-77 경희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지난 8월 2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분리국감, 실효성 거둘 수 있나'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李在熙(영어교육74-78 경인교대 총장)=지난 8월 20~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호텔과 경인교대에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1988 서울올림픽(26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黃仁子(대학원78-82 국회의원)=최근 여성 정책 전문가로서 남다른 생각과 정치력을 소개한 '황인자의 男다른 정치'(여성신문) 출간.



▲曹東昊(경제80-84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지난 8월 26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탈북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8회 뷰티플 드림 콘서트 개최.

▲朴淑蓮(기악81-85 순천대 교수·피아니스트)=오는 9월 29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리스트, 쇼팽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徐孝淑(서양화81-85 청주대 강사)=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대구 렉서스갤러리에서 'Deep insight'라는 주제로 제15회 개인전 개최.

▲李秀娟(기악87-91 장로회신학대 교수·피아니스트)=지난 9월 4일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피아니스트 김정민 씨와 함께 두오 피아노 리사이틀 개최.



▲李倫定(기악90-94 오보이스트)=지난 9월 15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아널드, 크루셀, 모차르트 등의 작품으로 오보에 독주회 개최.

▲鄭善仁(기악91-95 피아니스트)=지난 9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제임스홀에서 베토벤, 드뷔시, 슈만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朴昭映(동양화92-96 前국민대 초빙 교수)=지난 7월 7~16일 서울 가회동 '가회동60'에서 '한국화, 힐링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개인전 개최. 또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미국 LA Vision Gallery에서 'Walking in Nature'를 주제로 초대전 개최.

▲임명진(기악93-97 클라리네스트)=오는 9월 21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슈만, 슈베르트, 사라사테 등의 작품으로 클라리넷 독주회 개최.

▲임남희(기악95-99 피아니스트)=지난 9월 6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지(기악99-03)동문 등과 미루스 트리오 정기연주회 개최.



▲이정현(성악97-03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이사·테너)=지난 8월 8일 '이야기가 살아있는 클래식 상식백과'(돌출새김) 출간.



▲박보윤(기악94-98 세종대 겸임교수·피아니스트)=오는 9월 20

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쇼팽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정진희(기악01-06 경북과학기술훈대우교수·바이올리니스트)=지난 9월 12일 서울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트리오 콘 스피리토 귀국 리사이틀 개최.



▲蘇承廷(디자인학09-13 모교 미술 석사과정)=지난 9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문화인큐베이터에서 지난 1년



간 본보 '콩트릴레이'에 게재한 일러스트 10여 점으로 '이야기가 있는 그림展' 개최.

■ 참가 명복을 빕니다 ■

- ▲金應振(경성의전39졸 모교 명예교수)=8월 19일 별세(98세)
- ▲許 榕(경성약전46졸 삼일제약 명예회장)=8월 9일 별세(89세)
- ▲朴松培(통신공학47-51 KAIST 명예교수)=8월 1일 별세(90세)
- ▲文熙震(치의학52졸 前정치과의원 치과의사)=8월 24일 별세(84세)
- ▲洪承稷(영어교육49입 고려대 명예교수)=8월 4일 별세(85세)
- ▲邊鶴南(법학52-56 前한국마사회 상임감사)=8월 13일 별세(83세)
- ▲金世鍾(토목공학53-57 한국해외기술공사 부회장)=8월 24일 별세(80세)
- ▲鄭東源(약학53-58 前진양제약 회장)=8월 13일 별세(83세)
- ▲孫章純(불문54-58 前한양대 교수)=8월 24일 별세(79세)
- ▲鄭 烈(행정58-62 前한국기술금융 부사장)=8월 25일 별세(75세)
- ▲張善植(생물교육59-64 한국승강기안전센터 이사장)=8월 5일 별세(75세)
- ▲李寅圭(지구과학교육59-65 미미월드 대표)=8월 23일 별세(76세)
- ▲申明秀(경제60-64 前신동방그룹 회장)=8월 30일 별세(73세)
- ▲姜駿赫(미학66입 前성공회대 문화대학원장)=8월 17일 별세(66세)
- ▲朴沅基(AIC 12기 前KBS 광주방송총국장)=8월 26일 별세(65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이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동문전용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 1577-2050
www.nnoble.co.kr
편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특별한 VVIP를 위한 No.1 노블 결혼정보, 엔노블에서 서울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모십니다.

엔노블은 국내 최고의 8개 명문대 총동창회, 22개 전문직 단체·기업과 협력하여 5천명의 회원에게 특별한 결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격과 수준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곳, 바로 엔/노/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 노 블
결혼정보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16 상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4006호

대한민국 1등 결혼 약속

결혼, 더~원 해요

· 서울대 동문 및 자녀분들께 특별 할인 혜택과 함께
전담 커플매니저가 상담에서 결혼까지 책임집니다.



홍유진 커플매니저 / 더원결혼정보
한국대표 커플매니저 19년 경력 중매고수
1만건 상담 1,000쌍이상 성혼
KBS 아침마당, MBN 황금알 등 중매고수 출연

결혼중개업 등록번호: 서즈 080013

TV속 중매고수들

KBS "아침마당"

MBC 생방송 "오늘아침"

KBS "VJ특공대"

MBC "8시 뉴스데스크"

TV조선 "법대법"

MBN "황금알"

O'live "웰컴투 시월드"

17년 노하우 大賞

- 고객감동브랜드 大賞 3년 연속 (2014~2012) 결혼정보 1위
- 대한민국 올해를 빛낸 히트상품 (2012) 결혼정보 1위
- 고객사랑 브랜드 大賞 (2011) 결혼정보 1위
- 올해의 브랜드 大賞 (2010) 결혼정보 1위
- 한국을 빛낸 대표브랜드 大賞 (2010) 결혼정보 1위



대한민국대표결혼정보회사

☎ 1588-3883

더원은 **대명그룹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입니다.

www.dymcom.com.kr

"BUSINESS INNOVATION"

DYM은 고객과 함께 앞선 미래기술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Green Compound Global Top Leader, 케이블 컴파운드 전문 업체









(주)디와이엠
대표이사 박동하
(GLP 27기, 수석부회장)

- 고전압 케이블용 컴파운드 (High Voltage Up to 345kv)
- 선박용 고무 컴파운드 (For Shipboard, Offshore cable)
- 통신&자동차용 컴파운드 (For Electric Wire)
- 친환경 난연 무독성 컴파운드 (Halogen Free Flame Retardant)
- XLPE 컴파운드 (Cross-Linkable Compound)
- 광산용 컴파운드 (For Mining)



본사/3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8길 50(업성동)
 2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7길 33(차암동)
 1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울금6길 142-5

TEL.041-621-6250 FAX.041-621-8420
 TEL.041-621-5811 FAX.041-621-5813
 TEL.041-621-2460 FAX.041-621-0164



엔터테인먼트사업그룹

엔터테인먼트사업그룹은 매니지먼트 사업을 중심으로 모델에이전시, 콘서트,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전반적인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소속연기자, 제작사와 소통하며 파트너로서 win-win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회사로 자리잡겠습니다.

F&B사업그룹(Food & Beverage)

F&B사업그룹은 2012년 12월 외식사업 진출을 시작으로, 2014년 7월 말 현재 할리스커피 가맹점, 투썸플레이스 가맹점, 버거킹 가맹점, 엔제리너스커피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류사업그룹

물류사업그룹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기업물류시스템으로 2007년 국제물류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안정적 자금운영으로 원활한 대화주 서비스가 가능하며, 해상운임 경쟁력과 AUTO PARTS 미주지역 수출 노하우로 수입물류의 신속한 당일 통관 및 내륙운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화산업(주)

대표이사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 **김 세 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48길19 청호빌딩 4F
 TEL : 02-6277-9780 FAX : 02 3283 7979
 E-mail : skim344@naver.com

신 간

■ 새 헌법 개정안

— 金哲洙 지음



모교 법학부 金哲洙(법학52-56 본보 논설위원) 명예교수가 국회의장의 헌법개정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리한 심의자료집을 출간했다.

金명예교수가 과거에 발표한 논문을 중심으로 새 헌법 개정안 성립의 배경, 헌법전문·기본권 개정·국회제도 개헌·정부제도 개헌·지방자치제도 개헌 등에 관한 개인의견을 담았으며, 말미에 개헌에 관한 일간지와 월간지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金명예교수는 머리말에서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어진 이 헌법개정안은 현실적합성을 고려한 차선의 안이고, 앞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최선의 안이 될 것이기에 이 안이 앞으로의 헌법개정논의의 토대가 됐으면 다행이겠다”고 밝혔다. (진원사·값36,000원)

■ 격동기에 겪은 사상들

— 鄭範謨 지음



수많은 사건들로 점철된 파란만장한 격동의 세월을 보낸 모교 교육학과 鄭範謨(교육45-49) 명예교수의 교육자로서의 삶의 족적과

인생철학 및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이 자아정체성을 찾는 청년기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충북대 총장, 한림대 총장 등을 지낸 아흔 살의 老교수는 이 책에 살면서 부딪치는 시행착오들조차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읽는 이로 하여금 사상은 곧 ‘믿음’임을 확신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 현실의 편협함을 걱정하는 그의 교육자로서의 고뇌가 있다. 또한 극단주의를 경계하여 양립과 조화를 찾아가기를 바라고, 중용의 길을 강조하며, 행위가 목적의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보람이기를 바라는 그의 생각들이 녹아 있다. (서울대출판문화원·값26,000원)

■ 테너 이인범과 순교자

— 元佑鉉 편저



음대 학장의 탄생 1백주년을 기해서 아담한 단행본을 완성했다.

국민일보에 대서특필한 林亨萬 논설실장의 이인범에 대한 애정과 집념을 시발점으로 하여, 반세기를 넘어 수많은 애청자와 애독자의 마음과 뇌리에 각인된 테너 이인범의 목소리와 그의 부친 이학봉 목사를 배경으로 한 金憲國의 장편소설 ‘순교자’를 다시 한 번 조명, 정리해 이 책을 구성했다.

이 책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잊혀진 과거의 격정의 시대와 인물을 되새겨보면서, 현재의 우리들의 정체성을 재발견하려는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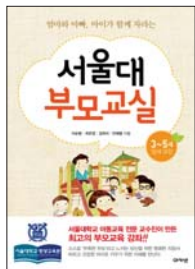
력으로 맺은 결실이다. (철우한빛원·값10,000원)

■ 엄마와 아빠,

아이가 함께 자라는

서울대 부모교실

— 李順炯 외 지음



모교 소비자 아동학부 李順炯(가정관리 70-74) 교수가 최근 정(대학원03-05)·김유미(소비자아동 97-02)·안혜령(소비자아동01-05)동문과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시기적으로 발달 전환기에 해당하는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李교수를 비롯한 필진이 육아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부모됨, 신체·뇌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 언어소통 발달, 문화 발달 등 7개의 카테고리 나뉘 설명한다. 카테고리 안에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양육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신체와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활동, 상황과 시기에 따라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아카넷·값16,000원)

■ 중국과 미국의 해양경쟁

— 李在珩 지음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를 맡고 있는 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李在珩(행대원78-80)소장이 중국과 미국, 두 나라의 해양 각축전이 어떠한 배경으로 어

전 시

■ 섬유미술 5인 시선전

— 9월 29일~10월 24일

서울 박을복 자수박물관

섬유설치미술가 吳桂淑(응용미술59-63)동문(사진)이 9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서울 우이동 박을복 자수박물관에서



‘섬유미술 5인 시선전(가제)’ 개최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吳동문은

하트랜드지부동창회장을 지낸 바 있다. 미주동창회장을 지낸 본회 吳仁錫(행정58-62)부회장이 오빠이고, 하트랜드지부동창회장을 지낸 李敎洛(의학59졸)동문이 남편이다.

공 연

■ 서수민 비올라 독주회

— 9월 26일 예술의 전당



비올리스트 서수민(기악 97-01) 동문(사진)이 9월 26일 오후 8시 서울 예

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비올라 독주회를 개최한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서 동문은 이날 브리튼, 쇠플러, 블로흐 등의 작품을 열연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

기획 586-0945)

■ 이상미 피아노 독주회

— 9월 27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이상미(기악 86-90) 동문(사진)이 9월 27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

이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미국 보스턴대에서 석사학위,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동문은 이날 하이든, 하인스데라, 쇼팽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 3436-5929)



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분석한 책.

해양과 인류의 역사발전에 대한 상관계를 시작으로 중국

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지를 분석하는 내용에 이르기까지로 구성돼 있다.

李동문은 이 책에서 금세기는 물론 다가오는 세기에도 해양력은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원천이며, 한 국가의 국위선양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황금알·값20,000원)

하늘목장과 함께하는 2014 평창 대관령한우 축제

주요 프로그램

요리경진대회 · 소고기올림픽
아기동물 농장 · 선자령 트래킹
트랙터 관광차 · 가족 그림 그리기
추억의 DJ박스 · 로데오 경기
문화공연 · 각종 체험행사

주 최 : 평창영일정선축산업협동조합
주 관 : 평창대관령한우축제위원회

www.dgl-festival.com



YOUNGBO DESIGN
INTERIOR DESIGN COMPANY

T 02 568 1490
F 02 561 1029
www.youngbodesign.co.kr
서울시 송파구 송파로 5(문정동)
송파한화오벨리스크 B동 911호

대표 : 이은규 (98학번 디자인학부)





한림제약이 전하는 건강뉴스 '치질 편'

고통이 하늘을 찌를때

화장실 갈 때 마다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당신!
더 이상 참지도, 망설이지도 말고 렉센에스를 넣어주세요
치질 증상에 효과적이며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켜줍니다

치질엔 Let's - 렉센[®]에스

치질엔 썩~ 고통은 썩!

치질치료제 렉센[®]-에스 좌제

통증을 완화시키고 싶다면! - 치질치료제 렉센[®]-에스 좌제

효능·효과: 내지질, 외지질, 항문염, 항문양창(항문 찢김), 상하 치루, 항문수술
용법·용량: 1회 1개씩 / 1일 2회 아침, 저녁 항문내에 삽입

증상은 달라도 치질엔 Let's 렉센

티나지 않게 숨기고 싶다면!
치질치료제 렉센[®]-티 정

효능·효과: 치핵, 항문열창, 치질로 인한 출혈, 항문부 울혈의 완화
용법·용량: 성인 1회 3~4정 / 7~15세 1회 1~2정, 1일 3회 식후 복용



상처에 직접 바르고 싶다면!
치질치료제 렉센[®]-연고

효능·효과: 표재성 피부병변, 치핵
용법·용량: 1일 3회 적량을 환부(질완부위)에 도포



제품문의 02)3489-6114

한림제약 주식회사
<http://www.hanlim.com>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항문부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 광고심의필: 1219-0200 |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세계로 연결하는 글로벌 금융파트너!

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 회비 : 2014년 7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4. 4. 28~8. 19) · 일반 (2014. 4. 28~8. 19)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李吉女= 1백만원
△부회장 朴熙伯= 1백만원
△부회장 李海遠= 1백만원
△부회장 閔庚甲= 1백만원
△부회장 李金器= 1백만원
△부회장 尹世榮= 1백만원
△부회장 鄭潤煥= 1백만원
△부회장 孫京植= 1백만원
△부회장 李洙彬= 1백만원
△부회장 趙炳祐= 1백만원
△부회장 朴浩田= 1백만원
△부회장 吳 明= 1백만원
△부회장 金東建= 1백만원
△부회장 洪錫炫= 1백만원
△부회장 李鍾基= 1백만원
△부회장 愼昌宰= 1백만원
△부회장 鄭忠始= 1백만원
△부회장 崔守鉉= 1백만원
△부회장 金英豪= 1백만원
△감 사 李相赫= 30만원
△감 사 朴英俊= 30만원

관 악 회

△이 사 李禮植= 30만원
△이 사 韓斗鎭= 30만원
△이 사 曹基浩= 30만원
△이 사 朴明潤= 30만원

상임이사

△李文漢 수의대동창회장= 20만원
△崔鍾車 대학원동창회장= 20만원
△李在述 경대원동창회장= 20만원
△文國現 SGS동창회장= 20만원
△朴煥熙 SPARC동창회장= 20만원
△高永一 AFP동창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창우 인문84
△구창덕 농대73 △김기웅 AMPP12
△김대인 SPAR23 △김병국 자연79
△김승배 AMP45 △김승환 SPAR20
△김정익 공대94 △김지수 사대88
△김지훈 농대87 △김태원 자연93
△김효준 인문93 △문호지 공대84
△민봉기 環院77 △박동운 AFB11
△박승규 공대69 △박신동 공대65
△박철민 AIC31 △서병호 의대73
△성대경 공대77 △양우현 자연87
△윤인선 공대79 △이동훈 사회74
△이성배 공대78 △이성홍 공대69
△이세원 법대95 △이영식 자연80
△이영옥 공대83 △이요섭 공대93
△이정우 AMFR17 △이한욱 공대93
△장세영 FIP8 △정민정 법대94
△정종섭 법대77 △정태웅 사회86
△조병호 공대74 △조재경 자연94

△최관호 경영90 △최성을 사대74
△최애영 ALP14 △태석기 의대72
△하홍식 ALP12 △한경섭 FIP8
△한남석 GLP27 △현경대 법대60

(일반) △강명순 사대63
△강이연 미대02 △고관영 문리49
△고정옥 간호52 △고주석 약대63
△공성욱 의대02 △공인영 공대77
△곽병훈 법대87 △곽석자 사대55
△구제병 SPAR16 △권순모 齒院06
△김구자 생활60 △김기연 공대82
△김남두 FNP3 △김병모 문리61
△김병준 법대67 △김소연 생활97
△김영삼 AIC34 △김용연 문리56
△김지근 사대71 △김지수 자연06
△김창도 공대68 △김충희 敎院68
△김홍진 농대65 △나순호 치대51
△류민희 의대89 △민병현 APC10
△박동오 농대54 △박민현 의대92
△박병호 농대69 △박승수 大院82
△박재윤 법대93 △박혜선 농대06
△박희순 생활60 △방익찬 문리69
△방종식 공대02 △서정환 농대69
△서철원 의대83 △송우진 농대91
△신계륜 AIP50 △신영주 AMP42
△안진영 공대93 △양윤조 사대58
△우무상 공대65 △우홍석 농대75
△원준희 FIP10 △윤경원 공대92
△윤영일 공대08 △윤형진 의대82
△이래환 HPM18 △이명훈 농대08
△이수형 保院01 △이용재 FNP5
△이용희 의대59 △이정욱 농대05
△이주형 ASP25 △이태홍 경영94
△이홍래 AIP50 △이희재 사대52
△임재환 ACAD5 △임태호 법대97
△장연국 공대10 △전혜원 문리58
△정승학 공대73 △정시식 농대61
△정연옥 공대86 △정윤철 법대87
△정진아 사대06 △정희정 HPM31
△조정현 KFL6 △주영순 사대51
△지영남 법대86 △최옥미 AFB13
△최중경 농대70 △한성철 상대69

이 사

◆인문대 △강현주93 △김정호90
△김주현90 △김태현75 △문선호87
△박진우93 △박해진81 △박희일91
△방한빈77 △변성수84 △변우식77
△서노원81 △신예리87 △신원식73
△오성민97 △이동림88 △이재학82
△이준호91 △이한목72 △임채희84
△장대철84 △정용모83 △조용일77
△조용호87 △조희태83 △최연혜75
△홍성범87 △홍종선75
◆사회대 △강경희84 △강성두78
△강철원76 △곽대환81 △권태훈87
△김광덕82 △김광영82 △김규수87
△김소용79 △김승희87 △김연광80
△김용호75 △김은진93 △김진국78

△김창균80 △김형규85 △김희철81
△노택선79 △류성록82 △문준석92
△박 철81 △박재진89 △박재하77
△박종국73 △박찬호76 △박희택96
△방창식83 △배현기84 △서동영79
△서명국84 △서영준69 △신기덕74
△신영호88 △오영환82 △오재석78
△유성엽80 △이동관76 △이상일81
△이상현82 △이석준78 △이재열80
△이종선87 △이창수85 △임영택80
△임희택78 △장성호86 △장철호83
△장홍근81 △전주현90 △정봉교72
△정성효81 △정예모78 △정종재82
△정종호83 △정지만78 △정현민81
△제민호82 △조동환82 △주병기89
△주홍민91 △최범수75 △한창욱92
△홍승석85

◆자연대 △강경관70 △강봉균80
△기준학81 △김광준81 △김진복74
△김희웅83 △노동진89 △박송웅74
△박영준92 △박용철72 △박태욱95
△석희용82 △송세안75 △안명환83
△원유덕81 △유상준76 △윤용하84
△이근희82 △이동한77 △이수용75
△이재철71 △이준영81 △이충렬00
△이현식73 △전동오84 △정현미82
△진 민78 △최승주72 △홍광현77
△황동규84 △황열순86

◆간호대 △김명숙61 △박상연68
△신순애83 △이인옥74 △전귀능83
△채명아82 △허 영74 △홍경자62

◆경영대 △강태웅79 △강한수87
△김영모79 △김홍섭79 △김확식76
△노정익72 △모과균84 △박주선86
△변재진72 △서정호88 △성기만84
△안병룡84 △윤주환85 △이상수73
△이성엽89 △이윤종80 △이재욱88
△이현우83 △이형일82 △이호선75
△장영철76 △전선규78 △조성문84
△조표훈95 △차순관72 △최용일89
△최종욱89 △최중경75 △최창묵82

◆공대 △강경태84 △강신이73
△강우영88 △강희신85 △고동일93
△공철규67 △곽성용77 △곽수태78
△권경준95 △권상익91 △김 한74
△김 훈71 △김광무83 △김광옥56
△김광원85 △김남호70 △김도심52
△김동규72 △김동성73 △김동진83
△김병규76 △김봉렬76 △김성기80
△김성도75 △김성은89 △김영권83
△김영신89 △김영학00 △김용수71
△김인동80 △김정인94 △김정철55
△김정훈03 △김종윤93 △김지상81
△김지수76 △김창택78 △김철호85
△김태문70 △김현준85 △김희령86
△남보우76 △남상률70 △남장수64
△류무열77 △문승현79 △박경수76
△박동서61 △박동식68 △박병엽71
△박상봉87 △박상서83 △박인균75
△박인오83 △박재종77 △박종규88
△박종택48 △박중근70 △박진수70
△박찬석92 △박한목87 △박해룡72

△박현길75 △박화규77 △박흥철51
△박희경73 △방병선79 △방상구78
△배성환02 △배영호63 △백승욱58
△백원필78 △서강석78 △서동식81
△서병수82 △서전석77 △선병수81
△설재훈92 △소동섭70 △송병륜05
△송창영68 △송하영74 △신경철76
△신동성64 △신동식51 △신영수74
△신현욱92 △안기식83 △안상순65
△안용호88 △안정욱02 △양 갑68
△양기정67 △양운재69 △양재균79
△여동욱86 △여인선75 △연상호83
△오경식75 △오희근81 △유영제70
△유준만63 △윤경목01 △윤근노62
△윤석구53 △윤세한79 △윤용균81
△이강우79 △이경신82 △이교성77
△이기재93 △이덕락78 △이덕영77
△이덕원75 △이동욱82 △이동희85
△이병철80 △이상선84 △이상호66
△이수남69 △이승기70 △이승욱91
△이원진89 △이원표72 △이인원69
△이재운63 △이재은61 △이제훈84
△이종국87 △이준성88 △이중재64
△이지원81 △이찬홍74 △이창진94
△이철원80 △이춘성71 △이충기66
△이태민85 △이태순79 △이태현95
△이현석94 △이현순69 △이효주77
△이희영76 △임민수66 △임채용89
△장민석92 △장상배82 △장성호94
△장영원66 △전대영85 △정 진84
△정기호82 △정명식50 △정무진64
△정목화52 △정태식92 △조국영92
△조득호66 △조영주74 △조영진76
△조영호75 △조필제46 △지인호76
△최병홍78 △최영석84 △최완철69
△최재관74 △최종욱69 △최준민77
△최준식71 △하규성76 △한성수83
△허성윤90 △허준호86 △홍성일66
△황인석68 △황일인59 △황정태88

◆농대 △강인섭73 △강철기76
△권재홍83 △김광호61 △김동태62
△김병운69 △김양재78 △김완기65
△김용관85 △김원보73 △김윤조89
△김은섭73 △김정근72 △김종언91
△김주양86 △김준영84 △김진구82
△김태동80 △김태수66 △김현태84
△김희성61 △노규식76 △명인종73
△목진만02 △민성훈89 △박경호84
△박병영89 △박상순86 △박상용83
△박승우67 △박종주66 △박창용65
△방화원80 △부경생60 △서광섭79
△서원호74 △서정근59 △선우정원81
△성낙근79 △손진규82 △손해일67
△송경빈75 △송경호56 △송기덕55
△신민종79 △양재승70 △여강연80
△염익환78 △오박철61 △오원식83
△왕진무60 △유 석59 △유문일66
△유병두73 △유세현79 △유여성76
△이규승67 △이기는83 △이덕남69
△이무근60 △이병욱64 △이상걸79
△이상용61 △이석한82 △이성수67
△이세표55 △이연숙65 △이원덕80

△이원재80 △이종현80 △이준원81
△이진희81 △이희수80 △장승호81
△정복현74 △정상호86 △정원화70
△정일성62 △정필수66 △조규태74
△조수경72 △조영래82 △조재구83
△조진환50 △진영호66 △최락현61
△최병영75 △최원규64 △최원철94
△최중섭79 △태웅문82 △하병찬87
△한갑준52 △한재용80 △허 명78
△홍동선56 △황인엽74

◆문리대 △고영재69 △곽영찬70
△권대승55 △김 욱69 △김대성61
△김옥남52 △김윤철67 △김진동58
△김춘석69 △김치수60 △김흥규69
△나기웅70 △남찬순68 △노태돈67
△문무홍67 △박동수46 △박성훈69
△박익송60 △박인국71 △박정무59
△박정운70 △배성균56 △안국정63
△안소연65 △양철주59 △염경일64
△염기영70 △유정열52 △윤호미61
△이상열71 △이성덕56 △이성우63
△이용태53 △이정윤54 △이형구59
△전성철69 △정 광62 △정연하61
△정용두53 △조영수64 △지경홍60
△추호경65 △허영식58 △한박무66
△홍종호62 △황종철67

◆미대 △강웅기94 △권석봉81
△김 정70 △김성희82 △김영대67
△김용진79 △김응화81 △김학두51
△나명희66 △박정기64 △백문기46
△송근영86 △유영일83 △윤옥진64
△임홍순48 △장 훈99 △전민숙74
△정병구66 △정종미76 △허 훈56

◆법대 △강민수65 △강상진87
△강영균84 △강형중84 △강희철81
△경우근67 △고현철65 △고흥달68
△곽종훈71 △구남수81 △기우종85
△김 신76 △김 욱86 △김건식73
△김경태63 △김권택63 △김규복69
△김덕주52 △김동훈77 △김병국66
△김봉화70 △김상근85 △김상우86
△김상일83 △김석기64 △김선욱63
△김성길60 △김세중82 △김수묵83
△김승중68 △김승호62 △김영광84
△김영기66 △김영욱72 △김영태84
△김영학83 △김용환60 △김유동86
△김윤기75 △김이수72 △김재정82
△김정보67 △김정일97 △김정후57
△김제성95 △김종구59 △김종률81
△김종호80 △김종훈83 △김준규75
△김진환67 △김창희82 △김철만87
△김철수52 △김춘호82 △김형선57
△김형수77 △김호웅72 △김호철85
△김희수80 △김희주84 △도정환83
△류수열75 △문대성85 △문상일84
△민수광60 △민일영74 △박 만70
△박강희83 △박기태76 △박병규55
△박상길82 △박성진84 △박용석74
△박재태81 △박충근68 △박해봉83
△박현순73 △배 도53 △배용찬86
△서정석77 △서창희82 △석용진59
△성백현78 △송상규84 △송쌍종61
△송영철80 △송창현69 △신원도87
△신현욱66 △신현일77 △신호철61
△신홍기82 △신희택71 △심우영59
△안건희78 △안경환66 △안병익88
△안성희66 △안재영70 △안창환84
△양인석75 △양희영52 △여상원77
△염용표92 △오병주75 △오천석76
△유 훈49 △유병규83 △유재선63
△유정호62 △윤보옥66 △윤우진71

△윤재기63 △윤준원67 △윤형환66
△이관표75 △이광만81 △이광범77
△이기배71 △이동명75 △이동흡68
△이두봉85 △이민재72 △이병호86
△이상래82 △이상환78 △이선우74
△이성호76 △이원호61 △이인상60
△이재성78 △이재창56 △이재환75
△이정민88 △이종순57 △이중훈78
△이철성78 △이춘성74 △장준철67
△전재기58 △전창영74 △정경택70
△정경호94 △정대권75 △정대철62
△정문화59 △정연조55 △정대용95
△조용무60 △조용준79 △조윤희86
△조정규68 △조준연85 △조해현81
△주성민69 △주우식78 △진정수86
△치문호88 △채주엽91 △최강호67
△최경자01 △최귀인56 △최기선64
△최석원52 △최성우81 △최우식75
△한승철82 △한승희55 △한주상63
△한준엽69 △한찬식86 △허영범88
△현병무52 △현순도66 △홍경식70
△홍광식67 △홍성무73 △홍성필89
△황성일56 △황의인74 △황찬현72
◆사대 △강순규76 △강하구68
△강현재72 △고문주76 △고영신73
△곽봉조70 △곽창신72 △구성희55
△권원태74 △김경자71 △김남조47
△김두정73 △김선주76 △김승권73
△김억관67 △김영애64 △김영조74
△김유명69 △김윤미94 △김점술82
△김종문72 △김종필46 △김종화68

△김준환61 △김지은92 △김진원56
△김천수58 △김혜영80 △김효진85
△나동진66 △문제세71 △박문수74
△박봉상59 △박영태67 △박완규80
△박원균89 △박정남57 △박종양85
△박전배74 △박화엽64 △박효석70
△백승권53 △복완근74 △석용정77
△송영아88 △송장섭69 △송재숙71
△신찬우48 △심창만84 △안광화63
△안재석86 △여태철84 △오두범64
△온기수70 △우성기74 △유승연73
△유영목77 △유환옥78 △윤석원68
△윤재석71 △이경복69 △이규석66
△이동식72 △이득우74 △이봉수74
△이상규56 △이선준48 △이성현56
△이원희71 △이은희92 △이재원70
△이재희74 △이종덕60 △이주연79
△이준동60 △이지연82 △이창득71
△이형윤71 △이환기81 △이환희54
△임찬희78 △임효숙81 △장보성86
△장종산82 △전인수75 △정귀생58
△정동춘80 △정봉문91 △정상권72
△정선영63 △정신화71 △정연만79
△정영목80 △정용길77 △정원식48
△정주섭52 △정지오73 △정찬모66
△주경식68 △최성재85 △최요섭71
△최운식63 △최희유68 △한도연49
△한상현68 △허영섭74 △현성준78
△홍석영85 △홍인수74
◆상대 △곽윤광60 △권영식66
△권태인46 △권혁승53 △김기중57

△김기휘66 △김뇌명63 △김동식61
△김명준62 △김병식68 △김상희66
△김성규57 △김윤일66 △김재순47
△김종서58 △김창달53 △김창수68
△김철영70 △박동순57 △박종민64
△박진화55 △서영택58 △서충석71
△신정철63 △신해철69 △우찬목55
△유원영57 △유장희59 △유진무62
△유희선65 △이갑현61 △이국희56
△이대우72 △이동혁65 △이용성56
△이재규65 △이종윤64 △장병구64
△장종록57 △정 용61 △정재택58
△정주호65 △조원구64 △조창제57
△최남식59 △최행주66
◆생활대 △김성은83 △김영미83
△김윤정93 △김정주56 △임윤경78
△윤혜원82 △이용호78 △이은화75
△정광호57 △정해자61 △조혜옥59
◆수의대 △김남식83 △김남훈87
△김윤수74 △김진구61 △나기식54
△니종국54 △남궁선57 △박성관74
△박재학77 △박전교74 △방극승64
△배상호64 △백영환56 △송치용83
△신 심67 △신래섭56 △신현덕80
△신현일57 △엄영호77 △오화균88
△이범준78 △이상인82 △이성모78
△조은제80 △조후익59 △최병조76
△홍상희82 △홍성근76
◆약대 △김경찬91 △김길수60
△김명수71 △김수경57 △김용남77
△김의영80 △김재곤59 △김진형88

△김태곤71 △김효중71 △맹민영56
△박대창69 △박태동77 △손인자69
△신화용46 △안병주69 △안원준80
△오연준56 △오응준58 △원희목73
△유태숙72 △이강현75 △이상희62
△이용연72 △이일영56 △전창수74
△조경일64 △조경호94 △조정식62
△주학우70 △최광조68 △최규진90
△최규팔70 △최근옥74 △최선식64
△최수영79 △한방숙66 △허 상58
◆음대 △김금수76 △김상원87
△김순옥73 △김영숙85 △김은경94
△김종필81 △김지윤93 △김현이82
△김혜중69 △남지현85 △문경해78
△민미란73 △박정자60 △박희덕77
△서윤진94 △신상호74 △윤기숙82
△윤이근74 △윤제상78 △이명희68
△이문경76 △이영신78 △이영자56
△이용일57 △이재숙59 △이한돈65
△이혜정81 △임정원83 △홍승현81
△황영기82 △황응준87
◆의대 △강승백82 △강신호46
△고영채74 △고종현74 △국형철76
△김광희55 △김기락68 △김기범92
△김명석62 △김미숙84 △김병철85
△김영태84 △김종성71 △김종환50
△김창욱72 △김한수82 △남상민85
△노충희70 △문석배97 △박상용57
△박영관58 △박영태70 △박지영82
△박호진72 △백종일83 △손근찬52
△손봉기73 △송인배73 △신주호81
△심성은91 △안용태69 △양영식66
△오병희71 △유경상64 △유성렬71
△윤용범66 △이 행80 △이갑순55
△이동규77 △이순형56 △이영돈73
△이윤호68 △이의돈61 △이의용72
△이종복79 △임미향97 △임준희93
△장수진06 △전영훈74 △정 민75
△정규환96 △정범영94 △정종환56
△조남혁70 △조상현80 △진홍용70
△최두수54 △최세준53 △한경일84
△함돈일84 △홍정룡69 △황순옥72
◆치대 △강민섭81 △김 욱88
△김 일51 △김각균71 △김강주79
△김능세70 △김응만81 △김인수82
△김종우66 △김태의60 △김효은82
△목성규81 △문진석76 △문형주79
△박기성55 △박동욱67 △박용한78
△박우찬68 △박재간79 △박홍규71
△방수남62 △배현성64 △백위현66
△서명우83 △서문석72 △손일수71
△신동인76 △안건모83 △오세웅90
△윤학영62 △이경우71 △이규철64
△이상대70 △이상재75 △이장훈57
△이재용73 △이재호80 △이정민92
△이창우75 △이창룡70 △이택훈71
△이현석82 △이형규57 △이혜자77
△임용준65 △임채균53 △임형순63
△장도훈70 △정원용52 △정재영70
△정행남62 △조광현70 △조형작64
△한광수72 △한우석76 △한종일78
△황 준63
◆대학원 △강경규81 △권부섭81
△김경진84 △김동식85 △김병주85
△김삼수87 △김상호79 △김석근81
△김창준86 △내병만77 △박복만66
△박성호95 △서수원89 △손정모83
△손충기79 △오진욱92 △유장훈86
△이광재78 △이동필81 △이상엽86
△이석연81 △이양근83 △이은성83
△이종규88 △전용기82 △조대우79

△최윤정04 △토토쿠니01 △황인자78
△황철용96
◆경대원 △김선대72 △김정태68
△신인철68 △최원영93
◆교대원 △송향섭64
◆보대원 △김진환87 △류문진92
△박남용02 △유용래85 △이윤현89
△조경중68 △황석천80
◆신대원 △유일연72
◆행대원 △김익영68 △김인동65
△문희갑66 △박병련82 △박우순76
△송병희88 △신호현84 △염준호12
△오태영85 △이원기67 △이주석84
△장완호95 △정시영93 △정여철74
△정창훈05 △정현욱88 △조현재86
△최석식83 △현성수78
◆현대원 △김수철76 △박동전87
△박종일84 △윤종식89
◆AMP △강만희51 △고시목8
△공희식72 △김도현72 △김용환72
△김익현72 △김진섭9 △노태식64
△문민빈75 △박영대1 △박영서14
△박원규50 △백복인71 △석 강61
△신명철8 △신지윤66 △심계진36
△심재만75 △안병구67 △양희강74
△오도환72 △오현택69 △유진석32
△유해준40 △육신학57 △윤승철73
△이수증26 △이용철75 △이태호20
△임성규73 △정영대48 △조봉구19
△조인수74 △조형수58 △최세필54
△최종욱15 △최종원73 △허덕행2
△홍승표68
◆AIP △권영렬19 △김경환13
△김극배48 △김대원48 △김석환30
△김성길7 △김성화46 △김용태30
△김유미46 △김유태44 △김준석46
△김창진48 △김태환31 △나재암7
△박남규47 △박병철41 △박승욱21
△박양수46 △박영옥38 △박정오16
△박희재1 △심재명17 △양희준16
△엄성욱47 △예상호8 △윤재영36
△이덕영23 △이동훈20 △이명호20
△이상원20 △이석우49 △이세영13
△이재서11 △이창범22 △이창섭29
△임봉순16 △장진영49 △전영하28
△정하결45 △조창식45 △조태웅18
△주영현12 △지해환49 △진영환9
△최익선25 △한옥문45 △허 영41
△홍두선49
◆ACAD △고세일32 △권오형73
△김경래18 △김무수74 △김시호73
△김용삼73 △김점수74 △김창식45
△김철환46 △노재우16 △노희식38
△박인복47 △석동연53 △손재권73
△신태용73 △심재금73 △안희수11
△유재필23 △윤석준33 △이강국63
△이상종73 △이상철33 △이연수72
△이영희57 △이종우63 △이진영56
△임충규45 △장기윤72 △장진영62
△최수근51 △황갑주48 △황계윤73
△황상모66
◆ABP △박정호38 △배재학41
△배영운91 △서규찬36 △서재선40
△서준용40 △심형보16 △유영희39
△윤해진29 △이무성38 △이상락4
△이상래24 △이은석36 △이현구39
◆SGS △강중원20 △권오신5
△김기문26 △김수근2 △김호영2
△박정호5 △신경근27 △안기석10
△안영대22 △이권의14 △이래원6
△임경보11 △조백일6 △조영규28



사람을 제일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 인터비즈시스템

스물다섯 인터비즈 뜨거운 젊음으로 도약하다!

SINCE 1989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잇는 인재관리전문기업 인터비즈가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젊은 청년의 패기와 열정으로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새 역사를 열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웃소싱 전문기업 - 인터비즈시스템
HR 아웃소싱 서비스 | 근로자 파견 서비스 | 헤드헌팅 서비스 | 채용대행 서비스 www.inter-biz.co.kr

(주)인터비즈시스템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6층(여의도동) 본사(관리) 02-799-7900 (영업)02-799-7979

△조용기19 △차원갑5 △최상석2
△최원오26 △허성호26 △허충희14
△황선주27

◆CHCN △문순자11

◆APC △권상태10 △권혁면18
△김명섭3 △박동근18 △안 기15
△정만모9 △조규정17 △조성구7
△조주현18 △최상현18 △하정호8

◆HPM △권기진8 △김강희11
△김동량27 △김명중6 △김병수9
△김성훈21 △김주필4 △김찬익30
△복성철30 △안영미28 △이난영26
△이석기14 △이정희12 △이한구10
△임동호10 △장성호6 △정성민28
△최낙원16 △최병용9 △최진호19
△하경호27 △하우형29 △황영집26

◆AMPP △김종민4 △김종배12
△서영교11 △손명호12 △이상철5
△이생기12 △이성현12 △이인곤2
△이종만5 △전제원12 △조현국12
△진노석4 △홍석우9 △홍창식12

◆AIC △강선무28 △곽복동28
△권성욱8 △김동현25 △김민철31
△김석영25 △김영배2 △문병언6
△박 훈12 △박명진33 △신원식32
△인희주26 △왕진원11 △이상석24
△이응대35 △이인기11 △이정재2
△이종봉33 △정동욱33 △정홍재20
△조강연30 △조정구8 △최인환34

◆AFB △권병환10 △김성하12
△김정민2 △김호운4 △마수진12
△문창동12 △박 율9 △방윤석10
△방주득11 △양근영10 △이용택11
△임영준11 △조수환12 △최동진11
△홍경래11

◆AMPFRI △강림구30 △김복엽23
△김재원17 △배명섭9 △백두철9
△서강인30 △윤명희30 △이기종1
△임한택6 △천병기19 △한기영3

◆ACPM △권정훈8 △김선규2
△김수용7 △두강현10 △박세원9
△박흥석6 △안익성8 △오병삼5
△이성만10 △이정현5 △진성의4

◆FIP △고영수2 △김성하6
△김시천9 △박성환9 △윤호석8
△정연삼9

◆GLP △강병섭21 △강창석14
△구윤관27 △권갑현18 △김규영18
△김세원25 △김중대20 △김호진5
△노길환26 △박영식18 △박홍순27
△서재섭24 △손영수3 △신명진13
△유시현7 △이경승27 △이기호26
△이석형12 △이성호13 △이영우27
△이우영24 △이형석23 △이훈순12
△전광일27 △전진규16 △정용기14
△조복기27 △최도승24 △최화선12
△한충권20 △홍영화16

◆ALP △김경일3 △김민성16
△김수연16 △김영진16 △김태유15
△남기현15 △문정립18 △백종각12
△여용동14 △유득상17 △이승림11
△임영철5 △좌상봉12 △허영호4

◆ANMP △백현숙5

◆SPARC △구능본21 △권영범11
△김 건8 △김미셀23 △문병무23
△박승식6 △박윤한20 △손정우15
△손태일13 △이혜경23 △정순태20
△최광중6 △최만범21 △허미연20
△홍순우15 △황인옥21

◆AFP △김성주11 △김창목9
△박희석9 △양오승11 △이창식6

◆ASP △김시화24 △김용두25
△김원환25 △김정원25 △김종연23
△노경학21 △전귀상24 △정연호25
△강예규7 △권영진6 △박상원10
△박정수3 △박종우12 △신철수9
△오영호2 △지용한10 △최성원2
△최수일1 △황해령7

◆IFP △강래영9 △권영용6
△김문학5 △김상호3 △김숙경8
△김옥희4 △박주완6 △손성기6
△이성건2 △이승득1 △조용우4

◆ABKI △강정은3 △김봉규1
△김진목1 △김진학2 △박준수2
△여명관3 △이현성1 △정해돈2
△최명숙2 △최은철3 △최인숙3
△현상섭2

◆KFL △백미혜11

일 반

◆인문대 △고명섭82 △김대환81
△김민지01 △김원희06 △김준연07
△김지은03 △박우현01 △박준성03
△박철준82 △서영민02 △성광정06
△윤상현91 △이승재79 △이준상65
△임혁기74 △전순익74 △최기용74
△한광욱78 △허영민11 △홍범식83
△황지우72 △황진상98

◆사회대 △고홍석90 △김덕수84
△김동욱87 △김병규05 △김봉준00
△김숙이04 △김영남86 △김일권03
△김정욱04 △김효진07 △방진욱91
△손종원81 △송상종78 △신대섭87
△양길용95 △오경수00 △유지석03
△윤여일91 △이광오73 △이세준82
△이승훈02 △이완희82 △이일현75
△이진녕78 △이찬복98 △이홍규72
△장명진07 △장병준07 △정삼봉73
△정용진98 △정지웅98 △조인우06
△황수연03

◆자연대 △강수현04 △강혜원12
△고민섭03 △권혁준06 △금왕호07
△김남우03 △김성현08 △김수정02
△김승관87 △김정균03 △김지규07
△김지예78 △박용호00 △박유나96
△박제근84 △서영만72 △신영우99
△신재혁07 △양제하08 △양홍도82
△유병수77 △윤상은07 △윤화식73
△이규현79 △이동춘79 △이새롬03
△이원석05 △이준기03 △이지희84
△임민규10 △임창수03 △장종만72
△정인권90 △조일권83 △채현우07
△현 준03 △현민아02

◆간호대 △권오겸56 △권인각77
△길광숙58 △김재희84 △노아영03
△박헌자63 △범지현03 △신은숙65
△양정은80 △오명희67 △임준서03
△최정욱55 △황문정81

◆경영대 △곽병우95 △권용기75
△김기준03 △김기훈02 △김병수08
△김완빈74 △김운호88 △김원재84
△김주연03 △김한국81 △명병석06
△박영안72 △박종욱06 △안호성00
△오진환77 △윤종빈68 △이매리03
△이철주81 △정지택87 △조진형05
△최 원00 △최영준02 △허성호82

◆공대 △강병철92 △강영식68
△고재현08 △곽동수53 △곽두영05
△곽희로61 △구영호72 △구정모93
△권봉일69 △권혁중88 △기영환69
△김 광91 △김 영52 △김 진08

△김광일56 △김규은48 △김남길61
△김대식78 △김대환86 △김덕환04
△김민규90 △김민철10 △김범균02
△김병남73 △김병석87 △김병진77
△김봉걸46 △김상원94 △김선제08
△김용백61 △김유간86 △김유희57
△김익석84 △김인명62 △김재형51
△김제욱73 △김종철73 △김종호72
△김준호75 △김지현10 △김진실08
△김진욱99 △김창언67 △김철호72
△김택영82 △김현덕01 △김현동06
△김형규10 △김형민04 △김홍남03
△김희우08 △남시도57 △노병덕89
△문선영10 △민영빈01 △박경호64
△박명규63 △박명준53 △박상덕71
△박석현67 △박성수72 △박승엽46
△박이관58 △박재서65 △배정희62
△백남식68 △백덕현53 △변정근52
△서성주08 △서정훈97 △성영환58
△성호용03 △손무익68 △손승래54
△송동영10 △신기현08 △신현국68
△신효순57 △안정기03 △안준규01
△안홍삼63 △양민영63 △오광석10
△오동익89 △오성목04 △오승종70
△오열근57 △오영택08 △오영환68
△우경호78 △우종민97 △유경진07
△유상희58 △유연상89 △윤석용78
△윤영기77 △윤정목63 △윤지규54
△이 룰00 △이갑연83 △이강우61
△이강훈52 △이경은05 △이경재10
△이길형69 △이동우85 △이명식49

△이미지03 △이병길59 △이병수77
△이사람06 △이성영63 △이세용82
△이소영06 △이승률55 △이영우58
△이우철52 △이원찬03 △이인태53
△이정균77 △이진혁04 △이충호10
△이현웅01 △이현행70 △이희발72
△임용택55 △임종현04 △장경욱95
△장재명00 △장현봉76 △전경우10
△전홍기69 △정 훈53 △정동진64
△정동혁10 △정상구73 △정상진68
△정연수05 △정용근85 △정인수73
△정지권60 △정태중48 △조동기93
△조문제73 △조수길53 △조영근67
△조영우03 △조재영10 △조정호65
△조철진10 △주석재75 △주용용72
△지덕선60 △진조철76 △최 탄62
△최광선84 △최동일06 △최산해08
△최석훈03 △최시정55 △권영준77
△하상달67 △한장원11 △한창석68
△허광엽05 △허병호08 △허준석99
△허창환10 △홍재훈81 △황인준95
△황지호99 △황해룡74

◆농대 △강동석78 △고성철76
△김갑근65 △김봉수50 △김삼식53
△김석동72 △김승훈10 △김영규51
△김용찬57 △김원문67 △김이기80
△김인철01 △김재영94 △김재윤64
△김재형88 △김종운82 △김종원67
△김주성05 △김태선56 △김한균64
△남궁수70 △민병욱76 △박경원08
△박기하49 △박동우70 △박상범02

△박성철07 △박용진85 △박윤근55
△박종대76 △박종효58 △박진화57
△박진현48 △박천서49 △박홍진67
△배기철04 △백영빈58 △변영숙70
△서원석79 △서진원05 △소병상74
△손광훈62 △손민기99 △손병구63
△송 흡03 △송종관52 △신경준76
△신인곤54 △신재인56 △신정균54
△심상현46 △안병권79 △안승요51
△안옥선87 △양석홍55 △양승엽52
△양인호03 △엄재훈77 △오영탁87
△오정행60 △오충용60 △오홍석50
△유병후73 △유서호94 △유성구03
△윤오섭48 △이경용53 △이구락69
△이규석03 △이동재59 △이두형53
△이병규53 △이병현59 △이상원07
△이춘녕36 △이화용53 △임근영91
△임록근06 △임승룡55 △임용섭87
△임철홍11 △장대석58 △장용인70
△정도웅69 △정영관56 △정지현53
△정현모80 △정황근79 △조명래10
△조성환51 △조준기54 △지재현08
△채수근74 △천기길57 △최상균51
△최성우00 △최수용98 △최유지97
△최진협54 △하맹종58 △하재명80
△하현팔68 △한관석54 △한기학52
△한상룡58 △한석현52 △하문도57
△한재선44 △홍성철50 △홍의표58
△황용진56 △황재순70 △황재우57
◆문리대 △강낙중56 △강명순59
△강세원56 △고석진57 △고인석56



△기우탁⁵⁷ △김신환⁵² △김영웅⁶³
△김용달⁵⁷ △김용웅⁶⁴ △김정숙⁵⁸
△김철용⁵⁴ △김현권⁷¹ △김형련⁶⁶
△김형호⁵⁸ △김홍철⁵³ △남기진⁶⁵
△도홍길⁶¹ △박성철⁴⁸ △박영순⁶⁸
△배태영⁶⁷ △변중섭⁴⁸ △성명제⁵⁴
△소광섭⁶⁴ △소광희⁵³ △송성원⁶¹
△신윤재⁵⁰ △신현식⁵⁶ △심상결⁵⁸
△오권태⁵⁶ △온중렬⁷² △우창웅⁵²
△유구영⁵⁹ △유병길⁶⁸ △유일현⁵⁹
△유지현⁶⁷ △윤영탁⁶⁰ △윤하정⁴⁷
△이강조⁵⁶ △이계원⁵⁹ △이병재⁶⁰
△이성화⁵⁸ △이영훈⁶⁵ △이용길⁶²
△이재현⁵⁶ △이중길⁶² △임채욱⁵⁷
△임채호⁵⁸ △장효희⁵² △정규석⁵⁶
△정영채⁶² △정익성⁵⁷ △정지영⁵⁷
△정해웅⁴⁹ △조원홍⁷¹ △조흥래⁵⁹
△최건수⁶⁶ △최관식⁵⁷ △최승일⁶¹
△한정인⁵⁰
◆미대 △김중경⁵⁴ △민철홍⁵⁴
△박소영⁹⁷ △박종규⁶⁹ △손복희⁶⁷
△안유신⁹⁸ △안종문⁶⁰ △양혜진⁹⁹
△유지영⁰³ △윤영출⁸² △이동원⁹⁰
△전지윤⁸⁶ △정규현⁰² △정인경⁸⁵
△조용숙⁶¹ △차정화⁰⁵ △최경주⁰⁴
△최인수⁶⁶ △한연호⁷⁷
◆법대 △강재섭⁶⁷ △강정욱⁸⁴
△경익현⁵⁷ △고전적⁷¹ △곽구택⁹⁰
△곽회준⁵⁸ △구은석⁹⁸ △구충희⁴⁸
△김각연⁸⁴ △김경만⁵⁸ △김경태⁸⁴
△김기수⁵⁸ △김남수⁶⁴ △김동익⁵³

△김무길⁵⁹ △김선규⁵⁵ △김소영⁰⁷
△김영갑⁷⁴ △김운용⁸¹ △김윤규⁵¹
△김일천⁶⁵ △김재규⁵⁷ △김재호⁸¹
△김정렬⁵⁴ △김정환⁵⁷ △김주원⁸²
△김진홍⁵⁷ △김현영⁶³ △문진구⁰¹
△박 찬⁶³ △박상근⁶⁰ △박준하⁰⁸
△박창훈⁷⁸ △박태호⁶⁷ △백보윤⁶¹
△변동결⁶⁶ △변은석⁸⁹ △서주홍⁷³
△석성환⁵⁴ △손재식⁵² △손정윤⁸⁷
△송남석⁵⁵ △신근식⁶³ △신성국⁷³
△심훈중⁵⁶ △안창수⁵² △양희수⁶²
△오형환⁶⁵ △우영화⁶² △유태길⁵³
△윤금중⁴⁸ △윤종수⁵³ △이계영⁴⁸
△이광철⁶⁵ △이대영⁵⁸ △이병무⁵⁷
△이상수⁰⁷ △이용관⁹⁹ △이원기⁸¹
△이용웅⁶⁵ △이익동⁶⁴ △이종일⁵⁵
△이준범⁹⁷ △이학성⁷⁷ △임강배⁸¹
△임상현⁵⁹ △장성웅⁰⁵ △전완수⁸⁵
△전일호⁹⁶ △정극수⁵⁵ △정기돈⁷⁸
△정우채⁰⁸ △정지태⁵⁸ △정지혜⁰⁴
△제갈현⁸⁴ △조세연⁵³ △조영국⁸⁶
△조인호⁷⁷ △하성대⁴⁹ △한광수⁶⁵
△한후진⁵⁷ △허무정⁷¹ △허주욱⁵⁴
△호영진⁵⁶ △홍종현⁶⁴ △황운영⁵⁵
◆사대 △강병득⁷⁰ △고경순⁶¹
△고종익⁷⁴ △고지연⁸⁴ △공수영⁷⁰
△구양언⁶⁰ △구지혁⁵⁷ △권오준⁵⁴
△김가영⁰⁷ △김경숙⁸³ △김광수⁷⁷
△김다림⁹⁵ △김명수⁶⁸ △김병국⁵⁶
△김소연⁸⁵ △김수웅⁶⁰ △김연성⁰¹
△김영찬⁵⁵ △김영철⁸³ △김예기⁵⁴

△김용선⁵³ △김은재⁴⁵ △김종우⁵⁴
△김주경⁵⁵ △김지숙⁰³ △김찬흠⁶⁰
△김태삼⁶³ △김태희⁰⁵ △김혜우⁶⁴
△김환수⁰³ △남상호⁵⁸ △마건일⁶⁴
△문일성⁵³ △민영업⁵⁵ △박영배⁵⁴
△박영숙⁴¹ △박영자⁴⁶ △박진동⁸⁴
△서혜지⁰⁶ △성완용⁶³ △심상정⁷⁸
△심상필⁵⁰ △안정훈⁹⁹ △양성봉⁷⁹
△오경자⁵² △오유정⁰⁸ △우인섭⁴⁷
△유명선⁶⁷ △유명수⁶¹ △윤상전⁵⁶
△이기종⁵⁶ △이기충⁵⁵ △이길오⁷³
△이길자⁶³ △이범훈⁴⁷ △이병무⁵²
△이보식⁵³ △이상철⁵⁹ △이시훈⁵⁷
△이윤하⁶³ △이재만⁵² △이종숙⁴³
△이현순⁵² △임수진⁸⁴ △장대운⁵⁴
△장완배⁶¹ △장준호⁵⁶ △전경옥⁵⁸
△전홍렬⁶⁷ △정광훈⁰⁰ △정근훈⁴⁹
△정부길⁵⁹ △정운영⁷⁶ △정원채⁸⁰
△정은실⁷⁴ △조낙현⁵⁷ △조연희⁵⁸
△차도완⁵⁵ △최낙준⁶¹ △최동진⁷⁶
△최두영⁷⁸ △최익규⁵⁰ △최재근⁵⁸
△최전학자⁵² △최희주⁵² △한상윤⁸⁸
△한정립⁵⁹ △홍종봉⁵⁴ △홍현선⁹⁴
△황득우⁹⁶
◆상대 △고을상⁵¹ △고학모⁵⁶
△김경렬⁵³ △김규석⁵⁵ △김만우⁶⁷
△김용은⁵³ △김한오⁵³ △김형주⁵¹
△나운배⁵³ △노준용⁶⁴ △박원규⁵⁸
△박지중⁶⁶ △변병주⁶⁰ △변형운⁴⁵
△서병태⁶³ △송재관⁶⁶ △송정위⁶⁰
△신동현⁵⁶ △신용태⁵⁹ △신중진⁶⁵

△양해성⁶⁸ △오맹선⁵³ △오우현⁵⁵
△위봉택⁶² △유재윤⁶⁸ △윤상규⁵⁷
△이규찬⁵⁵ △이기철⁵⁵ △이기홍⁵⁰
△이동원⁵¹ △이상호⁵⁷ △이필원⁶⁰
△장기선⁶⁶ △전창기⁵⁷ △정기완⁵²
△정문화⁷¹ △정상용⁶¹ △정택순⁵³
△정해운⁴⁶ △조근목⁵⁵ △채경석⁶¹
△최경국⁵⁷ △최성환⁵⁶ △최철현⁵³
△허남린⁵³ △홍구희⁵⁷
◆생활대 △박미연⁰⁴ △백선자⁶⁴
△심혜영⁰⁷ △안영희⁵⁷ △유은희⁷³
△이규진⁵⁸ △이미세⁷² △정경명⁷⁷
△정경숙⁵⁸ △정선영⁰⁶ △정하윤⁸⁶
△최종단⁸³ △한경자⁶⁶
◆수의대 △김지나⁰³ △김태희⁵⁸
△류기승⁶⁰ △명수남⁵⁴ △변광복⁶³
△서정기⁷⁸ △양건진⁸⁵ △오병춘⁶²
△원문상⁶⁰ △이상우⁶⁵ △이생근⁷⁸
△조광영⁵⁴ △최귀철⁷⁷ △황명수⁷⁴
◆약대 △공현표⁶⁷ △김수영⁹⁸
△김원선⁵⁴ △김장숙⁵⁸ △김종윤⁵³
△김주성⁰⁷ △김현옥⁵⁷ △김홍대⁵⁹
△류재은⁰¹ △류한호⁶⁰ △박창규⁵²
△서정훈⁰⁶ △송희성⁶⁰ △옥치완⁵⁵
△유용근⁵⁴ △유재영⁸³ △윤승모⁶⁷
△이삼수⁸⁰ △이상호⁶⁶ △이애영⁵⁶
△이월희⁵³ △이훈자⁵⁶ △장봉수⁶¹
△정환수⁵¹ △조순자⁶² △조철원⁵⁷
△최기철⁵³ △최동완⁵⁴ △최병규⁵²
△최혜정⁸⁶ △한은아⁹¹ △허진종⁶¹
△홍순태⁶⁷
◆음대 △강미증⁶⁹ △김경화⁷³
△김형삼⁷⁹ △문영애⁶⁵ △박기욱⁶¹
△박세원⁶⁶ △박정배⁵³ △오진목⁶⁸
△이민나⁰⁰ △이숙영⁸⁰ △이윤정⁰⁴
△이재영⁸⁰ △정혜연⁰² △최유리⁰⁷
△괴도영⁷⁹ △한혜연⁰³ △함전혜⁶²
△황인영⁰³
◆의대 △강성하⁷⁷ △강정후⁷⁰
△공현식⁹² △김내준⁴⁹ △김병엽⁵⁰
△김종박⁵⁹ △김희경⁰⁸ △노준량⁶⁰
△박남진⁷¹ △박수영⁰⁵ △박주홍⁰¹
△박준남⁷² △변종훈⁶⁹ △양두병⁶⁹
△유창민⁹⁴ △이도희⁷⁸ △이인영⁵¹
△이준결⁸⁸ △전동수⁴⁴ △조관재⁰⁸
△주영식⁶⁹ △주원식⁷⁶ △주정화⁵²
△주진순⁴³ △주흥재⁵⁷ △채희복⁸⁵
△최 현⁷⁴ △최동호⁷⁹ △최준호⁶⁹
△한정규⁹⁸ △홍혜경⁹⁷
◆치대 △강규목⁷⁶ △강신규⁶⁵
△김공배⁵⁸ △김병준⁶⁸ △김수용⁸²
△김신규⁵⁵ △김안형⁹³ △김평일⁷²
△김하늬⁰⁵ △박경정⁶⁹ △박시우⁵⁴
△박용세⁶⁰ △박용학⁵⁸ △박이자⁶⁰
△박태수⁶⁴ △백승진⁷⁵ △백유선⁶⁹
△서기진⁷⁹ △서기향⁷⁴ △서상주⁵⁶
△송광수⁵⁹ △송광철⁸² △송재경⁹⁶
△심정민⁸⁷ △안병관⁶² △안성모⁶⁸
△양병호⁰¹ △우형식⁵⁹ △윤수영⁶³
△이규철⁵⁸ △이세영⁹⁶ △임광수⁶⁰
△최원철⁹² △한영복⁵⁸ △홍성룡⁶⁴
◆대학원 △김우식⁶⁶ △박명호⁸⁹
△박미경⁹³ △서정호⁹⁹ △이수형⁷⁸
△이정도⁶⁷ △최귀인⁶⁵ △최홍규⁸²
◆경대원 △고창석⁷¹ △김일란⁶⁹
△박영희⁹⁰ △유민철⁷¹ △이철우⁶⁹
◆MBA △김형철¹¹ △이희은⁰⁶
△정희선¹¹
◆교대원 △홍순강⁷³
◆국대원 △신동연⁰³ △이진우⁰³
◆법대원 △신효정¹¹

◆보대원 △경광현⁷⁶ △노재영⁶⁵
△서광석⁷⁹ △오세민⁶⁷ △이용성⁷³
◆신대원 △변정민⁷³
◆행대원 △고윤환⁸⁴ △김명진⁶⁷
△김주현⁹² △노선호⁶⁸ △박명도¹¹
△박성룡¹⁰ △박완신⁷⁷ △신기약⁶⁴
△유필우⁷⁵ △임세환⁷¹ △정순영⁸¹
△정영섭⁶⁶ △채양이⁸⁶
◆환대원 △김경철⁸³ △김민주⁰⁸
△김인근⁸⁴ △노재원⁸⁵ △박종준⁰³
◆AMP △고운재²⁰ △김선홍¹⁴
△김성득³⁴ △김용범³⁰ △김태웅⁴⁸
△남현일³² △류철조¹² △민영복⁴²
△박민우⁷³ △박원식⁶⁶ △성영창²⁶
△신문범²³ △오연수⁴ △유영결²⁶
△유재열³⁵ △윤한팔⁷¹ △이영주⁵
△이종학¹³ △이종삼⁴⁰ △이진선³⁶
△장기효⁵⁰ △장남진⁴⁸ △조정현⁷⁴
△조준행⁷⁶ △진성섭¹⁰ △최병철⁶⁵
◆AIP △구향욱³⁷ △김영규⁴⁵
△김영선⁴² △김정영²¹ △백경흠²³
△양태준⁴⁰ △우동석⁷ △이문기¹⁶
△이병민²⁸ △이종기⁵ △이현영⁸
△임은재⁴⁵ △정일재³ △정희전²⁰
△조종제¹⁴ △차정웅¹⁸ △채대석¹⁵
◆ACAD △강기필¹⁴ △김동찬¹⁸
△김부근³¹ △문동명⁴⁴ △박형구⁷²
△서찬교⁴⁰ △안승우³⁸ △이강연²⁷
△이동승⁷⁷ △임대환⁶⁹ △전영채²³
△전종식⁷ △정하철⁵² △홍성철⁷⁷
◆ABP △권구철³⁹ △권금자²³
△김영근¹⁵ △변정섭¹⁴ △윤상규²³
△이정익²⁶
◆SGS △민상금¹ △장태복⁴
◆APC △안병철⁵ △이재욱¹¹
△홍기만³
◆HPM △김 철³¹ △김성근²⁸
△박기봉³¹ △오한진³¹ △이달희³¹
△조용선¹² △하진원³¹ △홍남희³¹
◆AMPP △권택훈¹³ △김도섭¹³
△양현수⁹ △정성훈¹⁰ △한재순⁷
△한태영¹⁰
◆AIC △김창기⁴
◆AFB △성진만¹⁰ △양기태⁷
◆AMPFRI △장선희²³
◆ACPMP △오동천¹⁰ △우철식⁸
△유정환⁷ △전영철¹ △최은성⁷
◆GLP △김광철²³ △김일연¹¹
△김재권²⁵ △김태화¹¹ △오창근¹⁷
◆ALP △김광주² △김영배²
△문훈숙¹² △이용재¹⁸ △이정재⁸
△이학범¹⁴ △장세영¹ △정영조⁸
△정재주¹⁹ △차원진³ △홍성룡¹⁹
◆SPARC △구재홍⁹
◆AFP △김홍렬¹ △백승정¹³
△조운자¹³
◆ASP △김관영²⁶ △박승구³
△박종복⁸ △오창환²⁶
◆ABKI △김세제⁴ △이진근³
◆FNP △류충현⁵ △박광영⁴
△방남후² △방수남⁵ △오덕근⁵
△이생재¹ △임일두⁵ △정수철⁵



행복한 내일은
어떤 세상일까

이번에는 마음 놓고 휴가 갈 수 있을까?
우리집 강아지처럼 날 반겨주고 반응하는 집은 있을까?
나보다 내 취향을 더 잘 아는 매장은 있을까?
내가 아프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병원은 있을까?
Smart Answer 삼성SDS

느낌표 이미지에는 삼성SDS 임직원들이 모델로 직접 참여했습니다

삼성SDS
물음에 답하다

업무 효율의 혁신 인텔리전트 오피스
안전하고 똑똑한 집 인텔리전트 홈
쇼핑 그 이상의 즐거움 스마트 리테일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길 스마트 헬스케어
Smart Answer 삼성SDS

smart answer

삼성SDS SAMSUNG

2014년 7월	
연 회 비	53,840,030
평생회비	44,142,500
입 회 비	520,000
계	98,502,530
2014년 누계	918,653,632

한글전화번호

1636

걸고

김명환

말하세요

www.callpia.co.kr/A08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2014 미스코리아 '眞 김서연' 양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선자들이 (주)콜피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모든 상호 · 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1588, 1544, 1644
등과 같은 대표번호 서비스로 1636 뒤에는
업종, 상호명 등 모든 말이 전화번호가 되는
차세대 음성인식 통신 서비스입니다. 1636
전화걸고 사용중인 상호를 말씀하시면
연결됩니다.

기존의 숫자 번호 바꿀 필요 없습니다

한글전화번호 1636은 기존에 사용하던 숫자
번호에 한글번호를 커버링하는 방식으로
1636을 통해 전화를 걸면 기존에 설정해두신
숫자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전화번호를 해지하거나 바꿀 필요
없이 한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시대의 흐름입니다

1636 음성인식서비스는 애플 아이폰의 음성
인식 서비스 '시리'를 개발하고 삼성전자의
'S보이스' 서비스에 기술력을 제공하는 세계
1위의 음성 인식 기술 회사인 뉴앙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한글전화번호

1636

주 콜피아

국번없이 1636 전화걸고

"김명환" 이라고 말하시면 연결됩니다

부 회 장 김 명 환

E-mail kmyhown@hanmail.net
Mobile 010-5210-7085

www.callpia.co.kr/A08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B동 908호

최대학위 수료증 보유자(157개)

COLOR
GOLF
WEAR
루이까스텔



LOUIS CASTEL
PARIS

